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2

박영민 외

1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01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09쪽

1 O 2 O 3 X 4 O

확인 문제 011쪽

1 ① **2** ④ **3** 날(실), 씨(실) **4** (한 폭의) 비단

1 이 시는 차분하고 진솔한 어조로 전개되고 있으나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에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③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문장 표현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④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에서 종결 어미 '-리'를 활용하여 고난을 견디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라는 유사한 문장을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배치하여 '당신'과 만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2 이 시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신과의 재회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추운 길목에서', '외롭고 긴 기다림'을 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에 체념하거나,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② 시적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시적 화자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나'를 날(실)과 씨(실)로 비유하며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날(실)과 씨(실)는 각각 옷감을 짤 때 가로 실과 세로 실을 뜻하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천을 완성할 수 없다.

4 이 시에서 '(한 폭의) 비단'이라는 시어는 '당신'과 '나'의 만남, '나'의 기다림의 결실을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24~25쪽

01 ⑤ 02 ④ 03 ② 04 손을 주고 05 ③ 06 ③ 07 ① 08 ① 09 ④

01 이 시는 차분하고 진솔한 고백적 어조로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처한 현실은 암담하나 시적 화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에서 반어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과 같이 가정적 표현으로 시를 끝맺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② '~다면', '~ 끝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에서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날'과 '씨'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천을 만들 수 없다. 이 시에서는 '당신'과 '나'를 '날'과 '씨'에 비유하여 함께 결실(비단)을 만들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02 '오랜 침묵과 외로움'은 시적 화자가 처한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며, 이 시구를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시적 화자는 '추운 길목'에서도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에서는 도치법과 종결 어미 '-리'가 사용되었다. 이 시구를 통해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기다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도치법은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문장 순서는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이나 ⓐ에서는 '주어 + 서술어 + 부사어'의 순서로 어순이 바뀌어 있으므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종결 어미 '-리'는 주어가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에서는 종결 어미 '-리'를 활용하여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시적 화자의 소망 또한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 '추운 길목'은 겨울의 추위를 그대로 느끼는 곳으로, 삶의 어려움에 처한 시적 화자의 암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시의 표현법

도치법	정서를 환기하고 변화된 느낌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말의 순서를 바꾸어 쓰는 방법이다.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의인법	동식물, 사물, 관념처럼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04 '손'은 위로와 위안을 의미하는 시어로, '손을 주고'는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나'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05 '경태'는 '시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수민'은 이 시가 1970년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경태'와 '수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로 민중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은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들이 연대하여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시적 화자의 소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이 '기다리던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해석의 근거를 시어나 시구의 의미, 또는 독자에 한정한 것이다.
②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자신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④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이 '사회 지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어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해석의 근거를 작가의 일생이나 다른 작품으로 한정한 경우이다.
⑤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06 시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면 작품 속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시에 의성어 '귀똘귀똘'이 사용되었으나, 형태를 표현하는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시적 대상을 향한 시적 화자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또한 '-습니다체'가 사용된 산문시의 형태이다.
② '나의 꿈'은 '당신'의 곁에 있겠다는 것으로, 시적 화자는 이를 '당신'에게 고백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④ '당신이~ -ㄹ 때에(~거든) ~겠습니다.'와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습니다체'는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체로, 이를 통해 '당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7 〈보기〉는 시에서 가정법과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시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표현 요소를 해석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당신', '산보할 때', '낮잠을 자거든', '책을 볼 때'와 같이 시어와 시구를 제시했지만 이는 가정법에 관한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에 시어와 시구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작품을 수용할 독자의 경험이나 독자가 얻을 만한 교훈, 감동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작가의 생애나 다른 작품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창작 당시나 특정적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8 작품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과 비평을 정리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비평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작품을 낭송하는 행위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③ 작품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여 작가의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것은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④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류하는 행위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보기에 적절하다.
⑤ 작품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복합양식 자료로 제작하고, 이를 출판사에 공유하여 소통하는 행위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학의 생활화

개념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 즉,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문학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함.
효과	개인은 내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실천 방법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문학 감상 및 창작물 공유, 낭송낭독 모임, 작가와의 만남, 문학 동아리, 북 콘서트, 문학관 방문, 문학 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09 〈보기〉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 해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을 읽을 독자를 고려하여 해석한 비평 글이다. 이미 비평 글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작가에 대한 정보로 설득력을 높일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이며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므로 작품을 읽을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감동과 교훈을 고려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작품의 주인공 '제제'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비밀 친구인 '뽀르뚜가 아저씨', '밍기뉴'를 애틋하고 힘이 되어 주는 관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경험이나 배경지식, 가치관 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독자마다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고 있다. 즉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비평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27쪽

1 O 2 O 3 O 4 O 5 X

활동 1 확인 문제 029~031쪽

1 발표자는 뇌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발표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상호 작용 **3** (1) O (2) X **4** 운동하기, 수면 취하기,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

1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과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발표자가 청중의 표정, 몸짓 등의 반응을 살피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발표자와 청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1) 발표자는 단호한 표정을 짓는 등 준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결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 발표자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4 발표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 수면,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를 제시하고 있다.

활동 2 확인 문제 035쪽

1 (1) X (2) O **2** 두려움, 새로움

1 (1) 글쓴이는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것이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라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진다.
(2) 글쓴이는 상상력이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자신이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활동 3 확인 문제 042쪽

1 ㉢-㉣-㉡-㉠ **2** (1) O (2) X **3** (1) 사회적 독서 (2) 시간 **4** ④

1 발표를 준비할 때는 먼저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예상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 그 후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의 개요를 작성하고(㉣), 예상되는 청중의 질문을 써 보고 발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적절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2 (1) 공동체 구성원들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 활동은 가정, 학교,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 누리집으로 독서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2)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외에도 도서관이나 서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1) 제시된 내용은 사회적 독서 활동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고, 사회·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으로도 실천이 기능하다.
(2) 제시된 내용은 발표 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전략 중 하나이다. 발표를 진행할 때는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요소에는 청중의 연령, 주제에 관한 청중의 배경지식이나 지적 수준, 흥미나 관심사의 정도 등이 있다.

소단원 평가 48~5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 내 봅시다.
10 ⑤ **11** 다양한 생각과 경험, 새로움을 향한 도전, 동화적인 상상력

01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은 수필이다. 이 글은 청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글이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청중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진 자료 제시, 실험 결과 소개 등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②, ③ 이 글은 강연글로, '뇌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과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한 것을 적은 글이다. 발표자는 (가)에서 뇌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및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나)와 (다)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⑤ 발표는 일반적으로 '도입부–전개부–정리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가)는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부, (나)~(다)는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전개부이다.

02 발표자는 바둑 7단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뇌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날 때 뇌에서는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진다. (다)에서 발표자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가 아니라, 뇌 전체를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03 발표를 준비할 때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정도, 지적 수준 분석하기, 청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중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기, 발표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등을 해야 한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발표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진행할 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발표 전, 준비 과정에서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해야 한다.
②, ④ 발표를 준비할 때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 정도, 지적 수준을 분석해야 한다.
⑤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청중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는 발표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04 (가)는 발표의 도입부로, 발표자를 소개하고 발표 내용과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은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발표자를 소개하고 발표 내용과 순서를 제시하는 단계는 도입부이므로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뇌 과학 분야에서 아직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고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이지만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며 뇌 과학 연구의 근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라며 발표 주제인 '창의성' 관련 배경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5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려는 것이지 청중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운전할 때 머리를 많이 쓸까요, 운전 경력이 7년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② 발표자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와 같은 몸동작을 사용하여 청중이 그림을 확인하며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자는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청중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보이자 '바둑 7급인 사람'과 '7단인 사람',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과 '운전 경력이 7년 된 사람'을 비교하면서 청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06 [A]에서 청중은 발표 중에 표정이나 몸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를 전달(ㄷ)하고, 발표자는 이러한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중과 발표자는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ㄱ).

오답 풀이 ㄴ. 발표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정을 통해 확인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가 몸짓, 손짓, 표정, 시선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ㄹ. 발표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을 부연 설명했을 뿐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07 (나)에서 발표자는 발표 내용의 근거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이 이 내용을 듣는 청중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자전거를 소유했는지만을 알아본다면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데는 부족하다. '자전거를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발상을 자전거 위에서 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창의성을 얻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수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절한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면은 몇 시간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③ 발표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발표자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할 수 있다.
④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⑤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청중은 이 발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미와 그 의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다)에서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창의적이려면 우리는 창의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물음으로는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발표자의 '뇌 활동'에 대한 설명은 창의적인 발상이 뇌 전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② ㉠ 뒤에서 발표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며 청중의 실천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창의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신경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는 내용은 발표를 통해 알 수 없다.
⑤ 발표자는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부분'에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발상과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부분'은 연관성이 없다.

09 '청유형 문장으로 독자에게 권유를 하여 청중의 실천을 유도'하는 전략은 주로 발표의 정리부에서 활용되므로 (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에서 청유형 문장이 쓰인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 내 봅시다.'이다.

평가 기준	평가
〈보기〉의 발표 전략이 사용된 청유형 문장을 (다)에서 찾아 서술하였다.	상
〈보기〉의 발표 전략이 사용된 청유형 문장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글쓴이는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동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상상력이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주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자신만의 경험을 쌓는 것'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말이다.
③ (나)에서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말이다.
④ (나)에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창의성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말이다.

11 글쓴이는 (나)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가며,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함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에서는 동화적인 상상력을 지니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글쓴이가 제시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상
글쓴이가 제시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글쓴이가 제시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1

58~62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당신과 나의 마음(소망)이 만나서 하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08** ①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면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01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에서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무형의 존재를 '손을 주고',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과 같이 '손'과 '눈'이 있는 인간으로 표현하여 비유법의 일종인 의인법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와 대상이 서로를 위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와 대상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현재의 시적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이상향에 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미래의 모습을 이상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시적 화자가 이를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체념적 정서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④ '날과 씨', '한 폭의 비단' 등 전통적인 소재가 시어로 등장하나, 이를 통해 고전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손'은 '다른 슬픔에게' 주는 것인데, '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하고 감싸 주는 것이다. 따라서 '슬픔에게 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해 주는 공동체적이고 따뜻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② '겨울'은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시적 화자가 겪게 될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외로움'과 '오랜 침묵'은 '추운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기다림을 이어 가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추운 길목'에서 '추운'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추위를 떠올리게 하고, '길목'은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간을 연상시킨다. 이는 밝은 미래에 도달하기 전 거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 〈보기〉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이 시가 창작되었던 1970년대는 서민들이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 빈민 등으로 전락해 힘겨운 현실을 살았다'고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구를 해석하면, 시적 화자는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며, 서민들이 고통과 슬픔에 힘겨워하는 상황에서도 연대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날'과 '씨'는 '한 폭의 비단'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날'과 '씨'는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서민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꿈'은 당시 서민들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볼 수있다.
④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어 '한 폭의 비단'이 되는 것은 당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만나, 함께 연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들의 사랑'이 '춥'지 않다는 시적 화자의 말은 서민들이 연대를 이룰 때 비로소 삶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해석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는 사이로 해석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의 글쓴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을 수용할 독자'를 근거로 활용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해석의 근거로 활용했다면 먼저 작품 밖의 지식을 제외하고 작품 안에서의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제시해야 하는데 시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작가의 생애 및 다른 작품'을 근거로 활용했다면 작가의 삶과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미지, 운율 등 표현 요소'를 근거로 활용했다면 작품에 활용된 표현 방식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근거로 했다면 창작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A]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에서 시적 화자는 '춥게 하리'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춥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는 겨울의 추위라는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겨울'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앞으로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이 해소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순응'은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른다는 의미인데, 시적 화자는 앞으로 닥칠 부정적 상황(겨울)도 춥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겨울을 견디겠다는 태

도는 '순응'이 아니라 '인내와 극복'의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앞으로의 새로운 상황'은 '당신'과 시적 화자가 만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시적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고난을 의미하는 '겨울'을 맞는 데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앞으로 시적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대상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되겠지만, 현재의 시적 상황에서는 이에 관해 알 수 없다.

06 '어느 날'이라는 미정의 미래에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라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꿈을 엮'는 것은 시적 화자의 소망이므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간절함의 정서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ㄷ). 또한 시의 처음 부분인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의 형식을 [B]에서 반복하여 수미상관의 구조가 완성되면서,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시상 전개의 구조적 안정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이 시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ㄴ. 문장 종결 없이 '있다면'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적 화자의 소망에 대한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보기〉에서 이 시를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시'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은 우리, 즉 '당신과 나의 마음 또는 소망이 만나서 하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의미를 ㉠의 형식과 동일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당신과 나의 마음(소망)이 만나서 하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보기〉의 관점에서 ㉠의 의미를 알맞게 해석하였으며, 시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어 ㉠과 동일한 형식의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보기〉의 관점에서 ㉠의 의미를 부족하게 해석하였으나 ㉠과 동일한 형식의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보기〉의 관점에서 ㉠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였고 ㉠ 형식의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8 이 시는 '당신이~때에(-거든)~나의 꿈은 ~겠습니다.'의 구조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화자의 바람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9 '여름날에 더위를 못 이기어 낮잠을 자거든'은 더위에 지쳐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 여름날의 자연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시인 한용운이 불교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구도자'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생애에 주목하여 해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사이에서 산보할 때'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상황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시적 화자는 '당신'이 새벽에 산보할 때, 낮에 낮잠 잘 때, 밤에 글을 볼 때 하루 종일, 항상 '당신'의 곁에 있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책상 밑'이라는 남루한 공간에서 '귀뚜라미'라는 미물이 되어서도 지키겠다고 표현한 것은 종교적 절대자에 대한 순교적이며 희생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10 (가)와 (나)에서 발표자와 글쓴이는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창의성은 일상에서의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예로 들어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② (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가)에서 발표자는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따라서 창의성은 높은 지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에서 창의성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이를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11 '바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입니다.'를 통해 발표자가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촉각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뇌 과학과 관련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청중에게 설명하고,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성격이 있다.
③ (가)는 발표로 일반적으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⑤ (가)에서 발표자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물음을 던지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단호한 표정을 짓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2 (가)와 같은 발표에서, 발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청중이 발표를 들으며 할 일에 해당한다.

13 (가)의 도입부에서는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청중에게 안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가)의 도입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발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리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의 도입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본격적인 발표는 전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4 (가)의 전개부에서는 지능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5 (나)는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 사실이 아니다',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창의성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책 「어린 왕자」는 창의력에 필요한 상상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며,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찾을 수 없다.

② (나)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에 받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창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④ (나)를 통해 세계 인구 중 창의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16 [A]에서 발표 중 청중은 표정이나 끄덕이는 몸동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였고, 발표자는 이러한 청중의 반응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중과 발표자가 의사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적 표현이란 대화와 같이 언어를 통한 표현을 말한다. 그러나 [A]에서 청중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비언어적 표현은 신체를 활용하는 언어로, 몸짓, 시선, 표정, 자세, 신체 접촉과 같은 것이다. [A]에서 청중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과 '고개 끄덕거림'과 같이 신체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연상 작용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어떤 것이 떠오르는 작용으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발표자의 대응을 연상 작용이라 할 수는 없다.
④, ⑤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강약, 어조, 억양, 속도, 장단 등을 통한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A]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7 (가)의 전개부에서 '창의성'은 '지능과 상관'이 없기도 하고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❷ 63~67쪽

01 ③ **02** ⑤ **03** ① **04**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 도치법을 사용하여 문장 표현에 변화를 주었고,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나 있다. **05** ②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 **12** ⑤ **13** ② **14** ⓐ는 상상력 없이 그림을 본 반면, ⓑ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본 것이다. **15** ④ **16** ③

01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에서 '어느 날'은 미정의 미래이고,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라며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체념적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 자아 성찰의 태도는 이 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자연과 관련된 시어는 '겨울'뿐이므로 자연 친화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당시 도시의 발전을 위해 소외된 서민들의 모습에서 현실의 모순을 느낄 수는 있으나, 시적 화자는 저항 의지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춥게 하리'에서 의지적 어조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과 같이 종결 어미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주고 있다.
② 시의 앞부분에 있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작품에 운율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③ '기다리리'는 기다리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춥게 하리'는 반문을 통해 추위 같은 고통을 견디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있다면', '~된다면'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미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3 '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한 폭의 비단'이다.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나'가 서로의 꿈을 엮어서 만들어갈 지향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04 이 시에서 도치법이 사용된 시행은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이다.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문장 표현에 변화를 주고,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도치법이 사용된 시행을 찾아 썼고, 도치법의 사용으로 나타난 효과를 서술하였다.	상
도치법이 사용된 시행이나, 도치법의 사용으로 나타난 효과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중
도치법이 사용된 시행과 도치법의 사용으로 나타난 효과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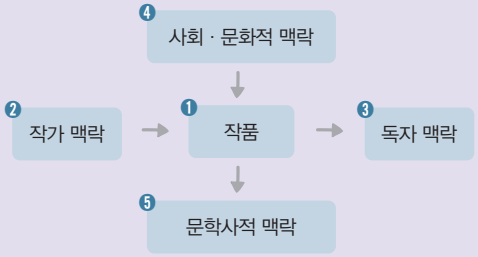
05 ㉮에서 '나는 15년 동안 가족이었던 반려견이 하늘로 간 후'라며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독자'를 해석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시인의 다른 작품인 「저문 강에 삽을 씻고」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다른 작품'을 해석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에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고, ㉯에서도 작가의 생애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에는 시인의 다른 작품인 「저문 강에 삽을 씻고」가 제시되어 있지만 ㉮에서 작품의 표현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에는 독자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독자'가 해석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맞지만 ㉯에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문학 작품을 둘러싼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이 작품에 다층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❶ 내재적 관점	시어의 운율과 표현, 작품 구조 등 작품 자체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외재적 관점	❷ 작가 맥락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창작 의도 등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❸ 독자 맥락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❹ 사회·문화적 맥락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❺ 문학사적 맥락	창작 당시의 문학적 경향이나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

06 비평 글은 작가의 삶이나 다른 작품을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작가의 작품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비평 글을 쓸 때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
② 비평 글에는 이를 읽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④ 문학 작품은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비평하는 관점이 다양함을 인지하고 다른 독자들의 해석과 평가도 참고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비평 글에 글쓴이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한 비평 글은 글쓴이의 지식이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한다.

07 시적 화자가 '귀뚜라미'가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서 울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당신'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작은 별이 되어 산보하는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겠다고 하였는데, 움직이는 '당신'을 계속 따르는 모습이므로 '나의 꿈'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② '당신'이 산보할 때 시적 화자가 곁이 아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볼 때는 함께하기보다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당신'이 낮잠을 잘 때도 떠나지 않고 당신의 주위를 떠돌겠다는 것으로 보아 '나의 꿈'은 언제든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⑤ '당신'이 여름날에 더위를 못 이길 때 맑은 바람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아 '나의 꿈'은 '당신'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08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작품 해석의 근거를 들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일치되게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09 Ⓐ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인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명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제시한 '에릭슨 교수의 이론'은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연구한 결론에 관한 것이지만 Ⓑ가 제시한 스티브 잡스의 명언은 연구를 통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는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음.)'과 같은 반응을 직접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하며 이에 대응하였고, '(청중 고개 끄덕거림.)'의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기만 할 뿐, 독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다.
② Ⓐ와 Ⓑ 모두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창의성에 관심 있는 사람을 예상 청중 및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는 언어적 표현과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는 글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다.

10 (가)에서 '지능 지수[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서는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지지만 '이 수치가 110~120이 넘어가면 더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일정 수준(110~120)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능 지수 120이 넘는 사람의 창의성은 얼마나 높아질까?'의 답은 (가)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읽은 후의 물음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ㄴ. 우리에게 익숙한 의료 장비는 엠알아이인데, 신경과학자들은 엠알아이가 아닌 에프엠알아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엠알아이와 에프엠알아이의 차이점과 에프엠알아이를 사용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다.
ㄷ. 천재는 없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남다른 경험이 무엇인지 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궁금해할 수 있다.
ㄹ.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근거는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을 읽은 후 궁금해할 수 있다.

11 (가)의 발표에서 발표자는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라며 창의성은 높은 지능에서 나온다는 사람들의 편견을 제시했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도 제시했다. (가)의 발표는 창의성에 대한 편견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진 학생들이 (나)의 글을 읽으며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한 편견 또는 오해를 더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서술하였다.	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2 사회적 독서 활동은 독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확장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말한다. 독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3 (가)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암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편견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가)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창의성은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할 때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할 것이다.

14 ⓐ는 상상력 없이 익숙한 방법으로 그림을 본 반면, ⓑ는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다고 상상하며 그림을 본 것이다. 따라서 'ⓐ는 상상력 없이 그림을 본 반면, ⓑ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본 것이다.'라고 서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상상력'에 대하여 비교하여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상상력'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상상력'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였고,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개인적인 독서 활동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독서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독서 활동의 가치로 보기 어렵다.

16 발표자가 인용한 '옛 그림 감상이란 조상들의 마음결 한 자락 찾아가기'는 옛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저자의 말이므로 저명한 인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기보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이 작은 화폭에 스물두 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며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청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김홍도의 「씨름」, 윤두서의 「자화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발표 목적은 조선 시대 미술 작품에 대한 소개이다.
④ 김홍도의 〈서당〉과 윤두서의 〈자화상〉을 시각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⑤ 〈보기〉에서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이 작은 화폭에 스물두 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로 보아 해당 내용에 대하여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01 국어와 매체의 변화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71쪽

1 O 2 O 3 O 4 X 5 O

활동 1 확인 문제 076쪽

1 중세 국어 **2** ③ **3** (1) O (2) X **4** 성조, 방점 **5** ㄴ **6** (1) 이어 적기 (2) 어두 자음군 (3) 가

1 국어사는 시대별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국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중세 국어는 고려 건국 이후 16세기 말까지의 국어이다.

2 〈보기〉의 '듕귁에달아'는 현대 국어에서 '중국과 달라'라는 뜻으로 '에'는 비교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 '에'는 보통 앞말이 처소나 진행 방향, 원인 등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데, '듕귁에달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을 비교하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교격 조사인 '과/와'이다.

3 (1) 'ᄆᆡᇰ·ᄀᆞ노·니', '·ᄠᅳ·들' 과 같이 모음 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 대체로 잘 지켜졌다.
(2)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4 중세 국어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로 의미를 구별하였고,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하였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성조가 거의 사라졌다.

5 중세 국어의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의 '어린'은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오답 풀이 ㄱ. '서르'는 현대 국어의 '서로'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ㄷ. '펴디'는 현대 국어의 '펴지'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ㄹ. 'ᄆᆞᄎᆞᆷ내'는 현대 국어의 '마침내'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ㅁ. '수ᄫᅵ'는 현대 국어의 '쉽게'로, 의미는 그대로이고 형태만 변한 것이다.

6 (1) 「세종어제훈민정음」 서문에서 중세 국어의 세로쓰기 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ᄠᅳ·들'과 같은 표기 등에서 중세 국어에서 이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고,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다.
(2)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는 이것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3)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 '이/ㅣ/Ø'가 쓰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뿐만 아니라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 '가'도 쓰인다.

활동 2 확인 문제 080쪽

1 매체 **2** ② **3** (1) O (2) O **4** 그림말

1 의사소통을 할 때 정보와 지식,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을 '매체'라 한다. 매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현재에는 과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2 라디오는 인터넷 매체 이전의 대중 매체에 해당한다. ①, ③, ④, ⑤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3 (1)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대중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도 변화하였다. 인터넷 매체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며, 정보나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2) 인터넷 매체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4 누리 소통망에서는 그림말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활동 3 확인 문제 085쪽

1 우리말샘 **2** 새말 **3** 소통, 언어 **4** (1) O (2) X

1 '우리말샘'은 일반 사용자들이 어휘를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표준어뿐만 아니라 신조어나 비표준어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반면 '표준 국어 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한 단어들이 등재되어 있다.

2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말로 줄임말이나 짧은 표현인 경우가 많다. 또한 새말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는 서로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새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매체의 발달과 변화는 매체를 기반으로 한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4 (1) 매체로 소통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2) 매체로 소통할 때는 새말이나 줄임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쓰도록 해야 한다.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이 점점 훼손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단원 평가 90~93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① **05** ⑤ **06** ⑤ **07** ② **08**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으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0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③ **16** ② **17** ④ **18**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어문 규정을 준수한 단어들이 등재되므로 '짤방'은 검색되지 않으나, '우리말샘'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표준어뿐만 아니라 신조어나 비표준어도 함께 등재될 수 있기 때문에 '짤방'이 검색된다.

01 'ᄉᆞᆺ 뭇·디'의 종성에서 '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세 국어의 종성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 자음이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ᄫᅵ', '·ᄠᅳ·들' 등에서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ᄠᅳ·들', '뮝·ᄀᆞ 노·니', '·날·로·ᄡᅮ·메' 등에서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몯 ᄒᆞᇙ'에서 'ㆆ(여린히읗)', '뮝·ᄀᆞ 노·니'에서 'ㆁ(옛이응)', ':수·ᄫᅵ'에서 'ㅸ(순경음 비읍)'을 확인할 수 있다.
④ '·ᄠᅳ·들', '·날·로·ᄡᅮ·메' 등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02 ':수·ᄫᅵ'에서는 음성 모음 'ㅜ'와 중성 모음 'ㅣ'가 결합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ᄠᅳ·들'에서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ᄍᆞᆼ·롤'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뮝·ᄀᆞ 노·니'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날·로·ᄡᅮ·메'의 '·날·로'에는 양성 모음끼리, '·ᄡᅮ·메'에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03 '中듕國·귁·에 달·아'는 '중국과 달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② '아·니 홀·씨'에는 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런 젼·ᄎᆞ·로'에서는 현대 국어의 '으로'에 해당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몯 ᄒᆞᇙ·노·미'에서는 주격 조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내·이·롤 爲·윙·ᄒᆞ·야'에서는 목적격 조사 '롤'을 확인할 수 있다.

04 '·날·로·ᄡᅮ·메'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날마다 씀에'로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날·로·ᄡᅮ·메'의 '·날·로'에는 양성 모음끼리, '·ᄡᅮ·메'에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③ '·날·로·ᄡᅮ·메'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④ '·날·로·ᄡᅮ·메'에서 '·ᄡᅮ·메'는 앞 음절의 끝소리인 'ㅁ'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것이다.
⑤ '·날·로·ᄡᅮ·메'에서 '·ᄡᅮ·메'에는 어두 자음군 'ㅄ'이 사용되었다.

05 'ᄯᆞᄅᆞ·미 니·라'에는 앞 음절의 끝소리 'ㅁ'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 ᄊᆞ·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만난 것이다.
② '文문 字·ᄍᆞᆼ·와·로'에서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니 르·고·져'에서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어 엿·비'에서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06 '·날·로·ᄡᅮ·메'에서는 명사형 어미 '-움'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에서는 명사형 어미를 확인할 수 없다.

07 '·ᄒᆞᇙ·배'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ㅏ'이므로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말 ᄊᆞ·미'에서 체언의 끝소리는 자음 'ㅁ'이므로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다.
③ '·노·미'에서 체언의 끝소리는 자음 'ㅁ'이므로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다.
④ '·내·이·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목적격 조사 '롤'이다.
⑤ ':히·ᅇᅧ'에서는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

08 '어린'은 현대 국어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평가 기준	평가
'어린'이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어린'의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의미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어린'의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의미 중 어느 하나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에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서르'는 현대 국어의 '서로'와 같은 의미이다.
② '젼ᄎᆞ'는 '까닭'을 의미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③ 'ᄆᆞᄎᆞᆷ내'는 현대 국어의 '마침내(드디어 마지막에는)'와 의미가 동일하다.
④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0 중세 국어의 '·ᄠᅳ·들'이 현대 국어에서 '뜻을'과 대응하는 것과 같이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ㄸ' 등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 예사소리는 'ㄱ, ㄷ, ㅂ, ㅅ, ㅈ'이다.
③ 거센소리는 'ㅋ, ㅌ, ㅍ, ㅊ'이다.
④ 입술소리는 'ㅂ, ㅃ, ㅍ, ㅁ'이다.
⑤ 센입천장소리는 'ㅈ, ㅉ, ㅊ'이다.

11 'ᄆᆞᄅᆞᆫ'에 나타나는 자음자는 'ㅁ', 'ㄹ'로 현대 국어에서도 쓰인다.

오답 풀이 ① '기·픈'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 'ㅍ'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이 되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한 이어 적기가 나타난다.
② 중세 국어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로 의미를 구별하였고,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하였다. '뭘'과 '씨'의 방점이 다르므로 성조 또한 차이가 있다.
③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다.
⑤ '바ᄅᆞ래'에서는 양성 모음 'ㆍ'와 양성 모음 'ㅐ'가 결합해 있다.

12 인터넷 매체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답 풀이 ② 인터넷 매체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없으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④ 인터넷 매체에서는 음성, 문자,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⑤ 인터넷 매체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서로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13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과 일상생활의 표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매체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②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⑤ 매체로 소통할 때 새말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4 (가)와 (나) 모두 그림말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는 대화 참여자끼리, (나)에서는 댓글 참여자가 그림말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꿀잼'과 같이 새말이나 줄임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에서 나누는 대화는 일상 대화에 가까운 구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우리 구름이들'과 같은 표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영상과 대화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15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의 일상화를 불러왔지만, 이것이 대면 소통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은 개인 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전파 매체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댓글 등을 통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④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지극히 빨라졌다.
⑤ 디지털 매체 기반의 소통에서는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감정 표현 등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언어 특성이 나타난다.

16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쇄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 인터넷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대중 매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 대중 매체는 주로 생산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17 '짤방'은 새말에 해당하는데 새말은 특정 세대나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나 집단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짤방'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로 새말에 해당한다.
② '짤방(잘림 방지)'과 같은 새말은 줄임말인 경우가 많아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③ 새말은 이를 즐겨 사용하는 대화자 간에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⑤ 새말은 상대방이 단어의 뜻을 모를 수 있으므로 그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18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한 단어들이 등재되어 있다. 반면 '우리말샘'은 일반 사용자들이 어휘를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표준어뿐만 아니라 신조어나 비표준어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같은 단어를 검색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차이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 중 한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의 특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95쪽

1 ○ 2 ○ 3 ○ 4 ○ 5 ×

활동 1 확인 문제 103쪽

1 ⑤ **2** 단어, 조사 **3** (1) X (2) ○ **4** 이제V믿을V것은V실력뿐이다. **5** ③ **6** ⑤ **7** 의존 명사

1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이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너무', '쓰러지다'와 같이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이다.

③, ④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2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별로 띄어 써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3 (1)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이다.
(2)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길이'는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4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5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그대로 적는다. 따라서 '외형률'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모음 'ㅗ'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았/었'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내놨다'는 '내놓다'의 어간 '내놓-'에 어미 '-았-'이 어울려 '내놨-'으로 준 것이다.
②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을음'은 '그을다'의 어간 '그을-'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이다.
④ '됐다'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었-'이 붙은 '되었-'이 줄어서 '됐-'이 된 것으로, 어간이 'ㅚ' 로 끝나는 말에 어미 '-었-'이 결합하면 축약된 형태인 'ㅙ'으로 적는다.
⑤ '법석[법썩]'은 'ㅂ'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6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오답 풀이 ① '같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② '웃음'은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③ '더듬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④ '같이'와 '더듬이'는 어간에 어미가 아니라 접미사가 붙은 것이다.

7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고,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며,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수', '지', '만큼'은 모두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활동 2 확인 문제 ✦ 110쪽

1 던지 **2** ④ **3** (1) X (2) O **4** 십V년V만의V귀국이었다.

1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얼마나 날씨가 춥던지 길이 꽁꽁 얼어 버렸다.'와 같이 쓰인다.

2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곰이'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해설에 따르면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고 하였다.
②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인 '나이에요'를 '나예요'로 쓸 수 있다.
③ '김치찌개'가 올바른 표기이며 '찌게'는 잘못된 표기이다.
⑤ 표준어 규정 제9항에 따르면 기술자에게는 접미사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멋쟁이'는 기술자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멋쟁이'라고 적는다.

3 (1) 한글 맞춤법에서 '마추다'는 비표준어로, '맞추다'는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다'의 명사형은 '맞춤'으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으므로 어미 '-ㄹ게'는 '-ㄹ께'가 아니라 '-ㄹ게'로 적어야 한다.

4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며 '만'도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경우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소단원 평가 116~119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않되는'은 '안 되는'으로 고쳐 쓰고, '왠일이죠?'는 '웬일이죠?'로 고쳐 써야 한다.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 ㉡: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11** ④ **12** ④ **13** ⑤ **14** ① **15** ④ **16** ① **17** ④

01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늙-'은 그 활

용형이 환경에 따라 [늘거], [늘꼬] 등으로 소리 나지만 '늙-'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늙어', '늙고'와 같이 적는다.

오답 풀이 ① '꽃이'는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② '하늘'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쓰러지다'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⑤ '바다'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넓다[널따]'는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02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을', '은', '뿐', '이다'와 같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3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너머'는 '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걸음'은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단어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같이'는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단어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길이'는 어간 '길-'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단어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앎'은 어간 '알-'에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단어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04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④는 '재미있던지'로 써야 맞다.

오답 풀이 ①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웬일'은 '웬'에 명사 '일'이 결합한 것이다.
② '되다' 앞에 부정 부사 '안'을 붙여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③ '봬요'는 '뵈다'의 어간 '뵈-'에 어미 '-어요'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봬요'로 써야 한다.
⑤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의 원인이므로 '-느라고'로 써야 한다. '-느냐고'는 '-느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절에 쓰인다.

05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어미 앞에 쓰이므로 '되다' 앞에 쓰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되다'의 부정 부사 '안'이 붙어야 하며, 이때 부사 '안'은 뒷말과 띄어 쓰므로 '안 되는'으로 써야 한다. 또한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웬일'은 '웬'에 명사 '일'이 결합한 것이다. '왠'은 '웬'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웬일'로 적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두 개를 모두 찾고, 바르게 고쳐 썼다.	상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한 개만 찾아 바르게 고쳐 썼다.	중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두 개를 모두 찾아 쓰지 못하였다.	하

06 ㉣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밖에'는 조사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에서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③ ㉢에서 '같이'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에서 '데'는 '-ㄴ데'의 일부인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07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11항 규정에 따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따라서 '선율'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모음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는다.
③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는다.
④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경우 본음대로 적는다.
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경우 본음대로 적는다.

08 한글 맞춤법 제27항에 따르면,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이므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어미 '-ㄹ게'는 '-ㄹ께'가 아니라 '-ㄹ게'로 적어야 한다.
②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④ '잠구다'가 아니라 '잠그다'가 기본형이므로 용언의 어간 '잠그-'에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하는 경우 '잠갔어'로 적어야 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곰이'로 써야 한다.

09 '네 시간 만에'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② '만한'은 보조 형용사로,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손꼽힐 만한'과 '손꼽힐만한' 모두 맞는 표기이다.
③, ⑤ '만'은 조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쓴다.

10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 쓸 수 있고,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쓰며 '-더라'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가 이사를 갔대.'라고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 ㉡에 들어갈 말로 '-대'와 '-데'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 ㉡에 들어갈 말로 '-대'와 '-데'의 의미 중 한 가지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 ㉡에 들어갈 말로 '-대'와 '-데'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1 '단'은 짚, 땔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 '-씩'은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2 '쐐어야'는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라 '쐬어야' 또는 '쐐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꾸다'의 '꾸-'는 모음 'ㅜ'로 끝난 어간이므로 '-었-'과 어울려 '꿨'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② '꼬다'의 '꼬-'는 모음 'ㅗ'로 끝난 어간이므로 '-았-'과 어울려 '꽜'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라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으므로 '놓았다'와 '놓아라'는 '놨다'와 '놔라'로 쓸 수 있다.
⑤ '되다'의 어간 '되-' 뒤에 '-어'가 어울려 '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1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또한 '하늘만'의 '만'도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4 '으뜸'은 두 모음 'ㅡ'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나는 것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② '훨씬'과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③ '담뿍'은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고 '이따금'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④ '소쩍새'와 '어깨'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⑤ '잔뜩'과 '산뜻하다'는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15 〈보기〉에 제시된 두 문장에서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을 의미하는 관형사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다'는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를 의미하는 부사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므로 띄어 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에다'는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다가'의 준말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6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쓰므로, ㉠의 '삼대일'은 '삼 대 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상대국'은 '외교 교섭이나 무역, 전쟁 따위의 상대가 되는 나라.'를 뜻하는 말로,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쓴다.
③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따라서 '최 감독'으로 써야 한다.
④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와 '함께'는 띄어 쓴다.
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이해뿐입니다.'로 써야 한다.

17 '냥'은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제10항에 따라 한자음 '년'은 '연'으로 적어야 하므로 '연세'로 표기한다.
② 제11항에 따라 한자음 '량'은 '양'으로 적어야 하므로 '양심'으로 표기한다.
③ 같은 한자음이라도 위치에 따라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
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단원 평가 ❶

124~128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 어리석다, ⓑ: 사람, ⓒ: 불쌍히 **09** ② **10** ④ **11** ④ **12** '공부 만 → 공부만',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네 시간만에 → 네 시간 만에',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13** ② **14** ② **15** ③ **16** ⑤ **17** ① **18** '나예요'가 맞습니다.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인 '나이에요'를 줄여 쓴 것이므로 '나예요'로 써야 합니다. **19** ② **20** ④ **21** ⑤

01 중세 국어는 'ᄠᅳ들', 'ᄲᅮ메'와 같이 각기 다른 자음이 음절 첫머리에 올 수 있었는데, 이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이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지고 '뜻을', '씀에'처럼 된소리로 변하였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는 이어 적기를 했고, 현대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한다.
②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했고, 현대 국어는 가로쓰기를 한다.
③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④ 중세 국어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을 쓰지 않는다.

02 '펴·디'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인 'ㅈ', 'ㅊ'이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ᄆᆞ·춤:내'에서는 현재 쓰이지 않는 'ㆍ(아래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ᄠᅳ·들'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수·뷔'에서 글자의 왼쪽에 표시된 방점의 개수를 통해 '수'와 '뷔'의 성조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뿌·메'에서는 'ㅸ'와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온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03 명사형 어미 '-옴/-움'이 쓰인 구절은 '·날·로·뿌·메'이다. 이는 '날마다 씀에'로 해석할 수 있다.

04 '뭥·ᄀᆞ노·니'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 있으므로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오답 풀이 ① ':수·뷔'에는 모음 조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어린'은 음성 모음과 중성 모음이 어울려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③ '·ᄠᅳ들'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나 있다.
⑤ '날로·뿌·메'의 '날로'에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뿌·메'에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나 있다.

05 'ᄊᆞᄅᆞ미 니·라'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모음인 'ㆍ(아래아)'가 쓰였지만, '·ᄠᅳ들', '·날·로·뿌·메'에 쓰인 모음은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모음들이다.

06 '나·랏:말 ᄊᆞ·미'는 현대 국어에서 '나라의 말이'란 의미로, 'ㅅ'은 관형격 조사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나 높임의 의미가 없는 무정 명사 뒤에 쓰인다. 여기에서 '나라'는 높임의 의미가 없는 무정 명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07 '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과/와'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으로'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08 '어린'은 현대 국어에서 의미가 달라진 단어로 현대 국어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중세 국어에서 '놈'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엿비'는 '불쌍히'라는 뜻으로 쓰였다.

평가 기준	평가
중세 국어의 '어린', '놈', '어엿비'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중세 국어의 '어린', '놈', '어엿비'의 의미 중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중세 국어의 '어린', '놈', '어엿비'의 의미 중 한 가지 이하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09 ⓐ 'ᄆᆞᅀᆞ미(마음이)'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므로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되었다. ⓑ 'ᄃᆞ리(달이)'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므로 주격 조사가 '이'로 실현되었다. ⓒ '부톄(부처)'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이므로 주격 조사가 'ㅣ'로 실현 되었다. ⓓ '소리'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므로 'Ø'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것은 ⓐ, ⓑ이고, ㉡에 해당하는 것은 ⓒ이고, ㉢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10 '꽃을'은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겨울'은 표준어를 발음에 따라 적은 것이다.
② '걸음[거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③ '마중[마중]'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샀다[삳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1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비율', '백분율'과 같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고, '확률'과 같이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음운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그대로 적는다. 따라서 '내재율'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내재율'의 '율'은 단어 첫머리에 온 것이 아니므로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수정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12 '공부만'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네 시간 만에'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평가 기준	평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2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단어의 품사를 밝혀 고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2개를 찾아 바르게 고쳤으나 고친 이유에 단어의 품사를 밝혀 쓰지 못하였다.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2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지 못하였다.	하

13 형용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형용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실없이'로 쓰는 표기는 적절하다. 그리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므로 '그는 나를 보면 실없이 농담을 하곤 했다.'와 같이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서 '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ㄹ'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어미 '-ㄹ게'는 '-ㄹ께'가 아니라 '-ㄹ게'로 적어야 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부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곰곰이'로 써야 한다.
④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않하던'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아니하던'으로 적거나 그 준말인 '않던'으로 적어야 한다. '않-'의 뒤에는 다른 용언의 어간이 올 수 없으므로 부정 부사 '안'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때 '안 하던'이라고 띄어 쓴다.
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이해뿐입니다.'로 써야 한다.

14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을', '는', '커녕', '만'과 같이 조사는 단어이지만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15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먹이'와 '미닫이'는 각각 어간 '먹-'과 '미닫-'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어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부사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졸음'과 '울음'은 각각 어간 '졸-'과 '울-'에 '-음'이 붙어 명사로 된 것이다.
② '벌이'와 '다듬이'는 각각 어간 '벌-'과 '다듬-'에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것이다.
④ '걸음'과 '얼음'은 각각 어간 '걸(걷)-'과 '얼-'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⑤ '실없이'와 '많이'는 각각 어간 '실없-'과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다.

16 '칼국수 면을 얼음을 넣은 물에 담갔다.'에는 의존 명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②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③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④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17 '잔뜩'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나타나지만, 두 모음 사이가 아니라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해쓱하다'는 모음 'ㅐ'와 'ㅡ'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③ '살짝'은 받침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④ '움찔'은 받침 'ㅁ'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⑤ '몽땅'은 받침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18 '나예요'가 올바른 표현이다.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인 '나이에요'를 줄여 쓴 것이므로 '나예요'로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적절한 표기를 선택하고, 그 이유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상
적절한 표기를 선택하였으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중
적절한 표기를 선택하지 못하였다.	하

19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없으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0 매체에서는 새말이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며 널리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새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일상생활과 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습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상황 맥락과 매체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⑤ 매체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언어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며 서로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지 새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일상생활에서 새말을 사용하면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② '꿀잼', '웃프네', '삼귀는'과 같이 새말은 짧은 표현인 경우가 많아서 이를 사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③ 새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일상생활에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우리말이 점점 훼손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❷ 129~133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날·로·뿌·메'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으)ㅁ/-기'를 쓰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옴/-움'이 주로 쓰였다. **07** ①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녀만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14** ③ **15** ③ **16** ③ **17** ② **18**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실시간,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19** ④ **20** ②

01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받침이 아니라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는 각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ㅸ(순경음 비읍)', 'ㆍ(아래아)'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하였다.
③ 중세 국어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로 의미를 구별하였고,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하였다.
④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02 '便뼌安한·킈'에서 '便뼌安한'은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진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날·로'에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쑤메'에서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03 현대 국어에서 '어린'이 '나이가 어린', '젊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기 방식은 이어 적기이다. '·몯 홇'에서는 이어 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쁘·들'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만나면서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이 되었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③ '·수·빙'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 연음이 되었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④ '·날·로·쑤·메'에서는 명사형 어미 '-움'이 쓰였는데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ᄉᆞ ᄅᆞ·미 나라'에서도 앞 음절의 끝소리 'ㅁ'이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이 되었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05 '·홇·배'에서 '배'는 '바+ㅣ'로, 주격 조사 'ㅣ'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높임의 의미가 없는 무정 명사 '나라'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② 부사격 조사 '에'가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④ 목적격 조사 '롤'이 현대 국어의 '를'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⑤ '너겨'에서는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는 명사형 어미의 쓰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으)ㅁ/-기'를 쓰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는 '·날·로·쑤·메'에서와 같이 명사형 어미 '-옴/-움'이 주로 쓰였다.

평가 기준	평가
명사형 어미가 쓰인 부분을 정확히 찾고,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명사형 어미가 쓰인 부분을 정확히 찾았으나,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가 쓰인 부분을 찾지 못하였다.	하

07 어법에 맞도록 적으려면, 단어의 원형을 살려 적어 주어야 한다. '더워'의 기본형은 형용사 '덥다'이므로 어간의 원형은 '덥-'이다. 따라서 '더워'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씻었다'는 [씨섣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씻다'의 어간 '씻-'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③ '넓다'는 [널따]로 발음되는데 형용사 '넓다'의 어간 '넓-'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④ '깎았다'는 [까깓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깎다'의 어간 '깎-'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⑤ '앉혔다'는 [안쳗따]로 발음되는데 동사 '앉다'의 어간 '앉-'의 원형을 그대로 적고 있다.

08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부터', '을'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① '대로'는 조사이므로 '네∨마음대로∨해라.'로 써야 한다.
② '같이'는 조사이므로 '눈같이∨흰∨꽃이∨피었다.'로 써야 한다.
③ '부터'는 조사이므로 '여기에서부터∨저기까지∨달리자.'로 써야 한다.
⑤ '보다'는 조사이므로 '나는∨동생보다∨일찍∨학교에∨간다.'로 써야 한다.

09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ㄱ' 받침 뒤에서 난 된소리 'ㄲ'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싹둑'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ㄱ, ㅂ'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것은 음운 변동 중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② '소쩍새'와 '어깨'는 모두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③ '해쓱하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⑤ '깍두기'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10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고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살든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웬일'은 '웬'에 명사 '일'이 결합한 것이다.
② 한글 맞춤법에서 '마추다'는 비표준어로, '맞추다'는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다'의 명사형은 '맞춤'으로 적는다.
③ '김치찌개'는 올바른 표기이며 '찌게'는 '찌개'의 잘못된 표기이다.
⑤ 표준어 규정 제9항에 따르면 기술자에게는 접미사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미장이'로 표기한다.

11 '실없이'와 '실업시' 중 '실없이'가 맞는 표기이지만, 형용사에 '-이'가 붙어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어 그 형용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마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대로'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얼음'은 어간 '얼-'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단어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⑤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이어지는 '률'은 그대로 적으므로 '시청률'이 올바른 표기이다.

12 모음 'ㅗ'로 끝난 어간에 '-아', '-았-'이 어울려 'ㅘ', 'ㅙ'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으므로, '내놨다'는 '내놓다'의 어간 '내놓-'에 어미 '-았-'이 붙은 '내놓았-'이 줄어서 '내놨-'과 같이 적어야 한다.

13 '만큼'이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반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앞 말과 붙여 쓴다. 또한 '적'이 '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평가 기준	평가
두 문장의 띄어쓰기를 모두 정확하게 하였다.	상
한 문장의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 문장의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중
어느 한 문장의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

14 '돈가스만'에서 '만'은 앞말과 붙여 쓴 것으로 보아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공부만'의 '만'은 조사이다.

② '손꼽힐만한'의 '만한'은 보조 형용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손꼽힐 만한'과 '손꼽힐만한' 모두 맞는 표기이다.

④ '네 시간 만에'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⑤ '음식만'의 '만'은 조사이다.

15 '갔대'가 맞는 표기이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 쓸 수 있고,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쓰며 '-더라'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가 이사를 갔대.'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해설에 따르면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이어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②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인 '나이에요'를 줄여 쓴 것이므로 '나예요'로 써야 한다.

④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어미 '-ㄹ게'는 '-ㄹ께'가 아니라 '-ㄹ게'로 적어야 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곰이'로 써야 한다.

16 '달맞이'의 '맞이'는 어간 '맞-'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굳이'는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살림살이'와 '쇠붙이'는 모두 ㉠에 해당한다.

② '묶음'과 '먹이'는 모두 ㉠에 해당한다.

④ '같이'는 ㉡에 해당하며 '벌이'는 ㉠에 해당한다.

⑤ '걸음'과 '엮음'은 모두 ㉠에 해당한다.

17 (가), (나)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사용하는 언어가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오답 풀이 ① 'ㅋㅋ', 'LIVE' 등과 같은 외국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꿀잼'과 같은 새말이나 줄임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에서만 쓰는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그림말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휴대 전화 대화방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실시간,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휴대 전화 대화방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소통 방식의 특징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휴대 전화 대화방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소통 방식의 특징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휴대 전화 대화방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소통방식의 특징을 한 가지 이하로 서술하였다.	하

19 '우리말샘'에는 비표준어인 새말이 등재될 수 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만 등재될 수 있으므로 '가심비족'과 같은 새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만 등재될 수 있지만 '우리말샘'에는 새말이 등재될 수 있어 '짤방'에 대한 검색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②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만 등재되어 있다.

③ '우리말샘'의 검색 결과를 보면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발음과 품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⑤ '우리말샘'은 검색한 '짤방'과 같이 표준어가 아닌 단어들도 등재되어 있다.

20 '짤방'은 새말로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새말이 외래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새말은 줄임말인 경우가 많아서 의미를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④ 새말을 모르는 세대나 집단에게 '짤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⑤ 새말은 새롭게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짤방'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할 경우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힘

01 매체를 보는 다양한 시선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37쪽

1 X 2 O 3 O 4 O 5 O

활동 1 확인 문제 139쪽

1 (1) X (2) O (3) O **2** 독자, 이해

1 (1) 사진 기술에 대한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예술에 개입하였을 때의 부정적인 반응의 예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2) 글쓴이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모두 제시하여 한 가지 견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3) 기사는 보통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함께 전달하며, 기사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 이 글은 인터넷 신문 기사이다. 신문 기사에서 내용과 관련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활동 2 확인 문제 144쪽

1 공익 **2** (1) 운율감 (2) 시의성

1 모든 광고는 독자나 시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적인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광고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한다. 이 광고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된 공익 광고이다. 공익 광고는 사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광고와는 그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다.

2 (1) 유사한 문장 구조를 광고 문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다.
(2) 이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시의성이 있는데 시의성이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적 요구에 들어맞는 성질을 말한다. 시혜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활동 3 확인 문제 147쪽

1 (1) 근거 (2) 타당성 **2** (1) X (2) X

1 (1) 매체 비평은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 비평문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써야 하고, 글쓴이의 관점과 견해가 드러나야 한다.
(2) 매체 비평을 할 때는 매체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2 (1) 매체에 대한 비평 자료를 찾을 때에는 편견 없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신과 비슷한 관점을 지닌 비평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비평한 자료도 함께 찾아 읽어 보는 것이 좋다. 비평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해 보거나, 여러 비평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관점을 담아 비평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2) 매체 비평 자료를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152~155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7 ③ 08 ⑤
09 ③ 10 ④ 11 ④ 12 이전 장면의 등장인물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영상 연출 방식이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③

01 이 글의 글쓴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예술의 개념과 범위가 넓어져 왔음을 이야기하고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예술도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공 지능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공 지능 그림과 예술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인공 지능 그림이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④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을 이용해 만든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이러한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02 ㄱ.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이었다는 앨런의 말을 표제에 직접 인용하여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ㄹ. 부제에 앨런의 그림에 대한 대중의 상반된 반응('예술의 죽음' 대 '예술의 개념 확장')을 제시해 독자가 표제에 언급된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기사의 표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부제에서는 표제를 보충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기사는 인공 지능 그림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루고 있으나, 인공 지능 그림의 한계와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 필요해'와 같이 글쓴이의 생각을 부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기사에서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것임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표제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라는 뜻으로, 독자는 표제를 통해 이 글에서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이 기사에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옹호하는 입장과 비난하는 입장의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기사에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하여 우호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글쓴이가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앨런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세히 인용한 것은 아니며 인터뷰의 내용을 상세히 인용하는 것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 한쪽의 의견을 상세히 인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히 알려 주고 있을 뿐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공 지능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카메라 발명 당시의 예술을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어 제시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04 글쓴이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공 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예술의 본질이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에서 인공 지능 예술과 인류의 예술의 우월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예술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글쓴이가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들을 예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인공 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5 이 기사에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과 동영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기사에서 인공 지능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히 알려 주고 있을 뿐 인공 지능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이나 동영상은 인공 지능의 발전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며, 독자가 인공 지능의 현재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②, ④ [A]와 [B]를 제시하는 것은 독자의 시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⑤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이 글이 제시된 매체가 복합양식성을 지닌 인터넷 신문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복합양식성은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여러 양식을 통합하여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와 음성, 음악 등의 청각 자료,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

06 앨런은 인공 지능 그림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실험한 작가이다. 앨런 쪽을 옹호하고 인공 지능 그림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인공 지능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여 더욱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앨런은 인공 지능 그림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지만 예술가의 수가 감소해 예술가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앨런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예술가가 직접 그린 작품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여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한 것이다.
③ 앨런은 인공 지능 그림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앨런은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07 ㉡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이 개입한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즉 ㉡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므로 인공 지능이 예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위기로 인식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쓴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④ 예술가가 인공 지능을 마지막으로 선택할지 말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중립적인 입장의 제목으로 이 글의 글쓴이가 쓴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08 이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의 처음 장면에 곤란을 겪는 이웃을 돕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존중과 배려는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체의 배려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의 주제는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으로,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이 광고는 영상, 음성, 문자 언어 등을 활용한 영상 광고이다.
③ 이 광고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광고의 주제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율감(리듬감)을 형성한다.
④ 영상 광고의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주된 발상을 파악하고, 그 발상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화면 구성 방식과 광고 문구, 광고의 배경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09 이 광고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사회를 하나로 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시청자의 반응으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광고에는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④ 광고에 등장인물의 선한 행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선행이 항상 보답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광고에 드러나 있지 않다.

10 이 광고에 담긴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는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 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광고의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분위기의 편안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소소한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광고의 전반적 분위기가 벅찬 감동을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경쾌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광고의 내용과 강렬한 리듬이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
⑤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은 광고에 어울릴 수도 있으나 쓸쓸한 분위기의 음악은 광고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11 〈보기 1〉과 〈보기 2〉는 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비평한 자료이다. 매체 비평이란 매체 자료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매체 자료의 가치를 논하는 것으로 〈보기 1〉과 〈보기 2〉에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이 함께 제시되었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은 주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광고를 비평하고 있다.
② 〈보기 2〉는 등장인물, 구성 방식, 소재를 중심으로 광고를 비평하고 있다. 또한 광고의 구성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보기 1〉과 〈보기 2〉는 공통적으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를 비평하고 있다.
⑤ 〈보기 1〉은 광고가 겉핥기식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보기 2〉는 여러 소재를 다루고 있어 광고의 주제가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 1〉과 〈보기 2〉 모두 광고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 광고는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이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영상 전개 방식은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존중과 배려'라는 광고의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혹은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모두 썼다.	상
'존중과 배려'와 의미가 통하는 주제를 제시하였으나 '지속적' 또는 '이어진다'의 의미를 밝히지 못하였다.	중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

13 매체 비평이란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기준을 들어 매체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버킷 리스트'라는 소재가 민영과 함께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정희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영화를 긍정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매체 비평 자료에서는 매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평가의 근거를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영화 비평문은 비평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매체 비평에는 글쓴이와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선택한 관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한다. 이 매체 비평문은 소재를 중심으로 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이 일관되고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 쇼트, 영상의 편집, 소리나 색감의 사용, 서사의 전개 방식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이나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평문은 촬영 기법이나 표현 방법에 대해 비평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④ 이 비평문은 영화를 보지 않은 예상 독자라도 비평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 블로그에 게시된 매체 비평문이지만 비평문에 사진, 영상 등의 복합양식 요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57쪽

1 X 2 O 3 O 4 O 5 O

활동 1 확인 문제 159쪽

1 ③ 2 작문 관습 3 (1) O (2) O 4 ⑤

1 보고서를 쓰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보고서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글의 주제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등은 어떠한지, 매체가 주제를 전달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지 등을 점검하며 보고서 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작문 관습이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말한다. 작문 관습은 글의 주제나 내용, 사용하는 어휘, 내용의 조직 방법이나 표현 방법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글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이를 쓰기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1) 보고서는 예상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므로 문장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보고서의 조사 계획은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및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4 보고서는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를 목차로 구성해야 한다. 조사 시 유의점은 보고서의 목차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활동 2 확인 문제 164쪽

1 (1) X (2) O 2 ⑤

1 (1) 설문 조사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쓰기 위해서는 동영상보다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면담 등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면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내용 생성하기란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도서,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의 내용을 마련한다. 보고서에 들어갈 자료는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으면서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활동 3 확인 문제 166쪽

1 (1) O (2) O (3) X **2** ⑤

1 (1) 내용 조직하기란 보고서 쓰기를 계획하고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내용을 조직할 때는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알맞은 곳에 배치한다.
(3)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의 순서로 배치한다.

2 보고서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게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내용을 조직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조사 결과를 바꾸어 작성해서는 안 된다.

활동 4 확인 문제 173쪽

1 협력 **2** ④ **3** (1) O (2) X **4** 고쳐 쓰기

1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과 관점을 조율하고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수집한 정보나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복합양식 자료는 그래프이다.

3 (1) 보고서의 처음에 사진을 제시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2)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참고 자료

공동 보고서

공동 보고서란 보고서 쓰기 계획부터 실제 조사, 관찰, 실험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쓰기까지 여러 명의 글쓴이들이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쓰기 윤리

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한다. 쓰기 윤리의 종류에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있다. 보고서를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개인적 쓰기 윤리: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
- 사회적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활용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

4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전개 과정이 적절한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며, 예상 독자의 지식, 기대, 요구 등을 고려하여 초고를 고쳐 쓴다.

소단원 평가 178~181쪽

01 ① **02** '선주'는 예상 독자, 목적,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03** ① **04** ④ **05** 보고서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절차로 쓴다. **06** ① **07** ④ **08** ③ **09** ④ **10** ④ **11** 따라서, 생각한다. /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삭제한 것이다. **12** ③

01 학생들의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보고서 쓰기의 절차는 '계획하기'이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조사 기간, 방법, 대상 등을 정한다.

오답 풀이 ②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초고 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④ 내용 조직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⑤ 내용 생성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보고서 쓰기 절차

계획하기	보고서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조사 기간, 방법, 대상 등을 정함.
내용 생성하기	도서,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의 내용을 마련함.
내용 조직하기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함.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작문 관습에 맞게 글을 작성하고 고쳐 씀.

02 '선주'는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상 독자'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쓰기 '목적'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를 동아리 누리집에 게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매체'를 고려하여 쓰기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예상 독자', '목적', '매체'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예상 독자', '목적', '매체'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예상 독자', '목적', '매체'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3 [자료 1]은 신문 기사 자료로,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내용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처음 부분에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적합하다.

오답 풀이 ② [자료 2]는 누리집 자료로,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예상 독자인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③ [자료 3]은 설문 조사 자료로, 설문 조사 결과 수치를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④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할 때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 대상을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⑤ 보고서에 활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04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에 해당한다. 내용 조직하기란 보고서 쓰기를 계획하고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③, ⑤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선정한 자료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예상 독자의 관심이나 지식수준에 맞는지, 제시한 자료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와 더불어 쓰기 윤리를 잘 지켰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05 보고서 쓰기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	평가
보고서 쓰기의 단계를 모두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상
보고서 쓰기의 단계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보고서 쓰기의 단계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6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할 때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은 '조사 계획'에 추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조사 결과 및 소감'에서 '라. 공연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1) 공간의 조각가, 무대 디자이너, (2) 빛의 예술가, 조명 디자이너, (3) 무대 뒤의 지휘자, 무대 감독'은 '가. 공연 관련 직업 종류'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마.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은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므로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보고서를 쓸 때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조사 계획'을 통해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에 면담 대상 및 일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검 내용은 적절하다.

07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보고서로,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찰 및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은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 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고서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③ 이 글은 시작 부분에 공연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⑤ '(다)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서는 글쓴이가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서는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쓰고 있다.

08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공연 관련 직업 체험, 공연 현장 견학 및 관람, 공연 관련 학과 체험, 직업인 특강·상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은 '직업인 특강·상담'이 아니라 '공연 관련 직업 체험'에 참여하는 것이다.

09 보고서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바)는 문장의 길이가 적절하고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된다. 따라서 문장을 나누거나 접속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므로, 사진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공연 관련 직업인 '연기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는다면 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독자들이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 줄 수 있다.
⑤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서 전문가 면담을 하였으므로, 전문가 면담에 대한 신뢰성과 쓰기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권용 교수님과의 면담일'을 참고 자료에 추가해야 한다.

10 공동 보고서의 조사 계획을 밝힌 (나)에서는 공동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 조사, 전문가와의 면담, 설문 조사, 조사 내용 정리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 내용과 분담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적절하다.

11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연 분야에 투자해서 더 많은 공연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한다. 이는 보고서의 작문 관습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기준	평가
삭제할 내용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삭제한 이유를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 서술하였다.	상
삭제할 내용이나 삭제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삭제할 내용과 삭제한 이유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2 '공동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할 점'은 공동 보고서를 쓰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소감 부분에 들어갈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독자에 대한 당부,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은 공동 보고서를 쓰고 난 후의 소감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1

188~191쪽

01 ⑤ **02** ② **03** 보들레르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예술 작품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일 것이다. 그는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는 기술이 예술성을 타락시킨다고 본 것이다. **04** ③ **05** ① **06** ① **07** ③ **08** ① **09** ③ **10** ⑤ **11** ② **12** ③

01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활용한 복합양식 자료이다.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문자 언어와 시각 자료(그림)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공연 관련 직업 조사 보고서로 문자 언어와 시각 자료(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이고, (나)는 보고서이다.

② (가)는 인공 지능 그림을 둘러싼 쟁점을 조사하고 취재하여 쓴 인터넷 신문 기사이고, (나)는 유의미한 정보를 예상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가)와 (나)는 모두 독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③ (가)와 같은 신문 기사는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 – (해설)'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와 같은 조사 보고서는 '조사 동기 및 목적 – 조사 계획 – 조사 결과 및 소감 – 참고 자료'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④ (가)는 문자 언어와 시각 자료인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보고서로 문자 언어와 도표(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다.

02 (가)와 같은 신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글쓴이의 개성적 표현과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느끼며 읽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표제나 부제는 기사의 핵심을 압축하여 보여 주므로, 표제나 부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하며 읽는 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⑤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과 상관없는 글쓴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④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에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활용된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03 보들레르가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비난한 것은 기술이 예술성을 타락시킨다고 본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보들레르가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예술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가 사진 기술을 비난하였음을 근거로 들어 서술하였다.	상
보들레르가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예술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를 글에서 찾지 못하였다.	중
보들레르가 인공 지능을 이용한 예술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과 그 근거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4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를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려면 무대 감독과 연기자에 대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은 '조사 결과 및 소감'이 아니라 '조사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다.

② [A]는 공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보고서의 목적에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다.

④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는 '공연 관련 직업 종류'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⑤ [A]는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내용이다.

05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 가장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 활동으로 뽑혔는데, 보고서에는 '직업인 특강·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06 이 광고는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음향 등을 함께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 광고이다. 영상 광고의 특성에 따라 영상, 시각적 이미지인 자막, 청각적 이미지인 내레이션, 배경 음악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광고의 종류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이

광고는 매체에 따라 크게 인쇄 광고와 방송(영상) 광고로 나뉜다. 인쇄 광고는 문자를 중심으로 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지만, 방송(영상) 광고는 그림, 문자, 소리 등 복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도 활용한다.

매체에 따른 광고의 표현 방법

- 인쇄 광고: 문자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에 호소함.
- 라디오 광고: 음성과 음향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청각에 호소함.
-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함.

07 ㄴ. 이 광고는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특정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 광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 광고이다. 이와 같은 공익 광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의 실천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ㄷ, ㄹ. 광고를 읽을 때는 내용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내용 면에서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보편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표현 방법 면에서는 표현 방법이 매체의 특성에 맞는지,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신문 기사와 관련된 특성이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ㅁ. 광고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08 이 광고는 '~지만', '이어 가고'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운율감(리듬감)을 부여하고,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지라도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9 광고의 자막에 쓰인 '배려', '도움', '응원', '소통'과 같은 핵심어를 하나로 묶는 광고 문구는 '존중과 배려'이다. 이 광고의 제작자는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그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광고 문구는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 줍니다.'이다.

10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쓰면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더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쳐 쓰기 단계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보고서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 연기자'는 모두 '공연 관련 직업 종류'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한 내용이므로 '조명 디자이너'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 풀이 ① 보고서의 형식을 고려할 때 '조사 계획'에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공연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보고서의 주제인 '공연 관련 직업 정보'에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보고서의 내용을 조직할 때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내용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조사 결과의 첫 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보고서를 쓸 때에는 자료의 출처가 되는 누리집의 주소, 신문 기사의 출처, 면담 대상 및 일자를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참고 자료의 출처는 보고서의 흐름상 '조사 결과 및 소감'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12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보고서의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ㄷ). 또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ㄹ).

오답 풀이 ㄱ.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것만 활용해야 한다.
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자료를 골고루 수집하는 것이 좋다.

대단원 평가 ❷ 192~195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② **06**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이다. **07** ④ **08** ⑤ **0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사회적 쓰기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01 이 기사의 본문에 통계 자료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인터넷 신문 기사는 인공 지능 그림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루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한 사례를 제시하여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이 예술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신문 기사는 문자 언어를 비롯하여 사진, 영상, 그래프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제시된 기사는 문자 언어와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인터넷에는 불확실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③ 기사의 표제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공 지능 그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룰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④ 기사의 부제에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비난하는 입장(예술의 죽음)과 옹호하는 입장(예술의 개념 확장)의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사의 부제에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2 이 기사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 기사의 부제('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 필요해')에 글쓴이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해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인공 지능 그림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예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 특정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03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은 문자, 그림, 사진, 소리, 음악, 영상 등 다양한 기호가 복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이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A]와 같이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 자료를 기사에 제시하여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 글에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인터넷 신문 기사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A]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③ [A]는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끄는 시각 자료로, 기사 목적과 주제를 고려할 때 적절한 보조 자료이다.
④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림은 글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A]는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 [A]의 출처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⑤ [A]는 인공 지능 발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 주는 자료이며, 인공 지능 그림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04 이 광고에 담긴 제작자의 의도는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광고는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 줍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05 이 광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광고를 보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③, ⑤ 광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자료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이다. 광고는 보통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만든다. 광고의 종류는 제작 목적에 따라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상업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6 이 광고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존중과 배려'라는 광고의 주제와 이것이 '지속적' 또는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존중과 배려'와 의미가 통하는 주제를 제시하였으나 '지속적' 또는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존중과 배려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함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이 광고는 자막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광고의 주제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8 〈보기〉의 비평 자료는 등장인물, 구성 방식, 소재에 주목하여 광고를 비평하고 있다.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작위성을 줄인 부분도 좋다.'에서 등장인물과 구성 방식에 대한 비평이 드러난다. 또한, '핵심어 안에 다양한 소재를 욱여넣다 보니 핵심 메시지가 옅어지고 광고 자체의 강렬한 인상도 약해져 아쉽다.'라는 부분은 소재에 주목하여 광고를 비평한 것이다.

09 '감상'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매체 비평'은 대상을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되,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매체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10 〈보기〉에 제시된 보고서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들을 고려할 때 [자료 1]~[자료 4]는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1]~[자료 4]는 공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11 자료의 신뢰성이 높으려면 자료 생산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따라서 [자료 4]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담 대상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을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② [자료 2]는 공연 관련 직업과 관련하여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므로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③ [자료 3]은 효과적인 진로 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독자들이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자료 1]~[자료 4]는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보고서의 주제에 맞는 자료이다.

12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내용 조직하기'는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내용을 조직할 때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하다가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 단계에서는 글을 쓰려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올릴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B] 단계에서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잘 몰랐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④ [D] 단계에서는 글을 완성한 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복합양식 자료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글의 끝부분에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D] 단계는 완성한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쓰기 맥락에 맞게 글을 썼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을 썼는지 등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써야 한다.

13 '선주'가 면담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을 교수님께 허락받아야겠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사회적 쓰기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평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서술하였으나 용어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중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4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

01 사랑, 그 속에 담긴 아픔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99쪽

1 O 2 X 3 O 4 O 5 X

확인 문제 201~203쪽

1 ⑤ 2 ④ 3 긴(끈) 4 질삼뵈 5 ⑤ 6 ③ 7 샤공(사공) 8 곶(대동강 건넌편 곶)

1 이 작품은 임과의 사랑에서 겪는 시련을 바위라는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지만,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a – 아즐가 – a - b' 구조를 바탕으로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닷곤 ᄃᆡ 아즐가 닷곤 ᄃᆡ',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등과 같이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5~8연에 고려 가요 「정석가」의 6연과 동일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③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라는 후렴구를 사용하여 전체 구조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④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임과의 사랑을 지키려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
②, ③ 시적 화자는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뿐, 이별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거나 이별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다.
⑤ 5~8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

3 '긴'은 '구슬'과 달리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임과 이별하는 시련을 겪어도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은 변함 없음을 비유하는 소재이다.

4 길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적 화자는 길쌈을 포기하면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한다. 따라서 '질삼뵈'는 시적 화자의 생계 수단이자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5 이 작품은 민간에서 구전되어 불리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어 전승된 고려 가요로, 기록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조선 시대에 이루어졌다.

오답 풀이 ① 고려 가요는 여음이나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② 고려 가요는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③ 고려 가요는 여러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장제(분연체)가 많다.
④ 고려 가요는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로 평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6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이별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임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사랑을 지키려 하고 있다.
② 5~8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다.
⑤ 13~14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이 대동강 건너편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7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임을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을 통해 자신을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시적 화자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될까 봐 걱정하며 그 여인에게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동강 건넌편) 곶'은 떠나가는 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소단원 평가 216~219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다. / 임이 새로운 여인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09 ④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② 17 (가)와 〈보기〉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소중한 존재를 잃고 슬퍼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고,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01 이 작품은 '서경 노래 – 구슬 노래 – 대동강 노래'로 구조를 나눌 수 있고, 각각에서 '슬픔, 연모, 이별 거부 – 변함없는 사랑 – 원망, 불안'으로 정서가 나타난다. 즉,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아니라 공간의 변화와 상징적 어휘 사용으로 시상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5~8연에서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회예 디신ᄃᆞᆯ'과 '즈믄 히를 아즐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ᄃᆞᆯ'이, '긴힛ᄯᅳᆫ 아즐가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과 '신잇ᄃᆞᆫ 아즐가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이 대구를 이루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시적 화자의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③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긴(끈)'에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비유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지는 분연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분연체 형식을 바탕으로 1~4연에서는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사랑 애원, 이별 거부, 5~8연에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맹세, 9~14연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과 질투, 불안 등의 변화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2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1~4연에서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9~14연에서 임을 단념하지 못한 채 임에 대한 원망이나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다]로 갈수록 시적 화자가 이별 상황을 인정하면서 체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4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② 5~8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하더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다.
③ 9~14연에서 시적 화자는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을 임을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게 해 준 사공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5~8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이다가 9~14연에 와서는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ㄱ). 또한 시적 화자는 사공에게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녈 비예 아즐가 녈 비예 연즌다'라고 하여 사공이 자신의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모르고,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게 해 주었다고 사공을 원망하고 있으므로(ㄹ), 사공이 임을 배에 태우지만 않았다면 임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시적 화자는 자신의 생업보다 임과의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별에 처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ㅁ. 시적 화자는 임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임이 다시 대동강을 건너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04 [A]의 '바회'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지, 이를 거쳐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회'를 사랑의 완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A]와 [B]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지니며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A]의 '구슬'이 '바회'에 떨어지는 상황은 [B]의 '즈믄 히'를 '외오곰' 지내는 것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② [A]의 '긴(끈)'과 [B]의 '신'은 모두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되는데, '긴'은 '신', 즉 임에 대한 믿음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A]의 '긴(끈)'은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는 '구슬'과 대비되어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05 '쇼셩경 고외마른'으로 보아 '질삼뵈'뿐만 아니라 '서경'도 시적 화자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경'은 '닷곤 ᄃᆡ'로 낡은 것을 손질하여 정비가 잘된 곳이다.
② '질삼뵈'는 시적 화자의 생계 수단으로,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여성이며 평민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적 화자는 길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므로 서경에서의 삶이 '질삼뵈'를 통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사랑을 위해 '서경'과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대동강'을 건너 시적 화자를 떠나고 있는데, 시적 화자는 대동강 건너편에서 임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며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동강(Ⓐ)'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해마다 이별 눈물이 대동강 물에 더해져 마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서 '대동강(Ⓑ)'에 시적 화자의 슬픔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과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대동강'이라는 공간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보기〉의 '대동강'은 푸른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지만, 이 작품에는 색채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작품과 〈보기〉의 '대동강'은 모두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일 뿐, '대동강'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④ 이 작품과 〈보기〉의 '대동강'은 모두 임과 시적 화자를 단절시키는 공간이다.

07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을 임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가게 한 '사공'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제3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은 ④이다.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는 개가 미운 임은 반기고 고운 임은 쫓는다고 하며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황조가」는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이 나타나 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어져 내 일이야~」는 임을 보낸 것에 대한 후회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시리」는 임에 대한 하소연과 원망이 나타나 있을 뿐, 다른 대상에게 그 감정을 전가하고 있지 않다.
⑤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가 나타나 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은 임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을 것이라는 뜻으로,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마음을 임의 행동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마음을 적절하게 한 문장으로 제시하였지만, 임의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중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마음을 임의 행동을 포함하지도 않고 한 단어로만 제시하였다.	하

09 ⓐ는 감탄사로, 음악의 가락에 맞추기 위한 여음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 여음으로 특별한 뜻 없이 운율을 맞춘다. 따라서 ⓒ가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와 ⓑ 모두 각 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작품 전체에 구조적 통일감을 준다.
② ⓐ는 모든 행의 첫 음보 뒤에 붙어 행의 시작을 알려 주고, ⓑ는 각 연의 마지막에 붙어 연과 연을 구분해 준다.

③ ⓐ와 ⓒ는 모두 음악의 가락을 맞추기 위해 붙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
⑤ ⓐ의 '아즐가'와 ⓒ의 '나눈'은 여음, ⓑ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후렴구로 ⓐ~ⓒ는 모두 여음과 후렴구가 발달한 고려 가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10 (가)는 이별의 정한(情恨)을 독백적 어조로 노래하다가 9~14연에서 '샤공아'라고 말을 건네는 어조로 바뀐다. (나)는 이별의 정한을 독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 떠나는 이별 상황이 나타나며, (나)에서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고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③ (가)는 반복되는 부분이나 여음구를 제외하면 '서경이∨셔울히∨마르는'과 같이 한 구를 세 번씩 끊어 읽는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나)도 '나 보기가∨역겨워∨가실 때에는 / 말없이∨고이 보내∨드리우리다.'와 같이 한 행을 세 번 끊어 읽는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④ (가)는 'a – 아즐가 – a - b / 후렴구'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1연과 4연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수미상관을 이루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서경'과 '대동강', (나)는 '영변'과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향토적 정감을 유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소월, 「진달래꽃」

이 시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별의 슬픔을 인종으로 극복하려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헌신적인 사랑을 표상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 시적 화자는 '진달래꽃'을 임이 떠날 때 뿌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애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7·5조의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가)에서 시적 화자는 '우러곰 좃니노이다'라고 하여 이별에 대한 거부 의사와 이별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나)가 이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거부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을 말없이 고이 보내겠다는 것에서 순종적,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시적 화자는 대동강을 건너간 이후의 임의 행동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별 후의 상황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의 시적 화자는 이별하는 상황에서의 시적 화자의 정서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시적 화자는 사공에게 애꿎은 원망을 하고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라는 등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즈려밟고 가라며 임에 대한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 5~8연에서 시적 화자는 구슬, 바위, 끈에 빗대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표출하는 것은 9~14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임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내용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임을 따라가려 하는 내용은 1~4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13 (나)의 3연에서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이 뿌린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말하며,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정한을 희생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4 (나)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② 종결 어미 '–우리다'가 1연, 2연, 4연에 반복해서 나타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1연의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 –우리다.' 구조가 4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 수미상관을 이루어 작품의 형태적 안정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나)의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을 형상화한 자연물이다.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이 가실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겠다며 즈려밟고 가시라고 하는데, 이는 시적 화자가 자기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나)에서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임을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진달래꽃' 자체에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 '곳'은 대동강 건너편에서 임이 새롭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여인으로, 떠나는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불신이 담겨 있다.
②, ④ ㉡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상이자 분신이다. 시적 화자는 임이 떠나가는 길에 그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하며 떠나는 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16 ㉢에서 시적 화자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임과의 이별로 슬픈 자신의 심정을 극대화하여 나타내고 있을 뿐,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로 어순을 바꾸어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은 표면적으로 '슬퍼도 꾹 참고 임을 보내 드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제발 날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④ ㉢과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는 자신이 느낀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애이불비(哀而不悲)'란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말로, 시적 화자는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한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애이불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 〈보기〉의 시적 화자는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고, (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으로 인해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시적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죽은 누이동생과 미타찰에서 재회할 것을 다짐하는 반면에, (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거나, 임을 태우고 강을 건넌 뱃사공에게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등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두 작품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중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2 자연, 그 속의 여유로움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21쪽

1 O 2 X 3 O 4 O

확인 문제 223쪽

1 ④ **2** ④ **3** (1) 탁료계변 (2) 초당 (3) 충성

1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만족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네 수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유사하므로 각 계절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가 대조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네 수는 '강호에 ~이 드니 ~ 역군은이샷다'라는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② '강호에', '역군은이샷다'라는 반복적 표현으로 자연을 즐기는 삶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적 화자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제3수]에서 시적 화자는 그물을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있으며 이는 욕심 없이 소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그물을 멀리 던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1수]에서는 봄을 맞은 시적 화자가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초당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쐬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제3수]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강에 나간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제4수]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 삿갓과 도롱이만으로 추위를 견디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1) '탁료계변'은 봄을 맞은 기쁨에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2) '초당'은 시적 화자가 여름에 시원한 강바람을 쐬며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3)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어우러져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칭송하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여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평가 234~237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⑤ **05** ③ **06** ⑤ **07** 시적 화자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08** ② **09** ③ **10** ⑤ **11** ② **12** ⑤ **13** ③ **14** ③ **15** ② **16** ⓐ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고, ⓑ는 일을 마치고 흥겨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01 이 작품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이나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생활을 그려 내고 있지만, 역동적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제1수]~[제4수]는 '강호에 ~이 드니'로 시작하여 '이 몸이 ~도 역군은이샷다'로 끝맺는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어 작품 전체에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③ [제1수]~[제4수]는 계절에 따라 한 수씩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계절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제2수]와 [제4수]에서는 더위와 추위를 이겨 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서늘하옴', '춥지 아니하옴'과 같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⑤ '안주로다', '역군은이샷다', '바람이로다'와 같은 영탄적 어조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생활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02 [제2수]에서는 '강파'가 믿음이 있어 바람을 보내 준다고 의인화하여 시적 화자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적 화자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백운(흰 구름)'이 연주를 듣고 존다고 의인화하여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삶에 대한 자부심은 〈보기〉의 '어느 뉘 이 좋은 뜻을 알 리 있다 하리오'에 나타나 있지만, [제2수]에서는 한가한 삶에 대한 만족감만 드러나 있을 뿐 그런 삶에 대한 자부심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파(강 물결)'는 바람을 일으켜 시적 화자에게 보내 주어 시적 화자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게 해 준다.
② '백운(흰 구름)'은 자연에 묻혀 친구 하나 없는 시적 화자가 벗을 삼을 수 있는 대상이다.
③ '강파', '백운'이라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대하거나 벗을 삼는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가 자연을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2수]는 초당에 일이 없고 한가하다는 데서, 〈보기〉는 초암이 적료한다고 한 데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수장, 「초암이 적료한데~」

세속을 떠나 초가에서 홀로 거문고를 타고 풍류를 즐기며 사는 한가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고요한 초가에 혼자 앉아서 구름을 벗 삼아 거문고를 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운치 있게 그려 내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갈래	평시조
성격	한정가, 자연 친화적
주제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한 삶과 풍류
특징	• 영탄법, 의인법, 설의법이 사용됨. • 대상을 의인화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함.

03 [제4수]에서 시적 화자는 눈이 뒤덮인 겨울에 삿갓과 도롱이만으로 추위를 견디면서도 만족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①은 봄의 정취와 외로운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② 윤선도의 「만흥」에서 시적 화자는 소박한 집을 짓고 사는 자신을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작품이다.
④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면서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04 [제1수]~[제4수]는 계절에 따라 한 수씩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수에 드러난 시상은 대등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1수]에서 [제4수]로 갈수록 자연을 즐기는 흥취와 임금에 대한 마음을 고조시켜 제시해야겠다는 구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각 수의 초장은 '강호에' 뒤에 계절적 배경을 차례대로 제시한 뒤, 그 계절에 맞는 모습이나 흥취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제2수]~[제4수]는 '초당', '고기', '눈'과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흥취를 제시하는 데 반해, [제1수]의 초장은 '흥이 절로 난다'와 같이 새로운 봄을 맞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여 시상을 열고 있다.
③ [제1수], [제3수], [제4수]의 중장은 '탁료계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 '소정에 그물 실어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와 같이 계절에 따른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2수]의 중장은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와 같이 여름의 자연 풍광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각 수의 종장은 '한가하옴', '서늘하옴', '소일하옴', '춥지 아니하옴'과 같이 중장에서 제시한 화자의 생활상을 집약하여 나타낸 다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역군은이샷다'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5 〈보기〉에서는 사대부가 '선비'와 '신하'의 양면적 속성을 지님에 따라, 그들이 향유한 시가에서도 심신을 수양하고자 하는 바람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나타나는 양면적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한가한 삶에 만족하면서도 이러한 생활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사대부로서의 양면적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만족하고 있지만,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지는 않다.
② 시적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과 속세의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적 화자가 소정을 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소일을 위한 것으로 생계를 위한 생산 활동이 아니다.
⑤ 시적 화자는 초당에 할 일이 없다고 하며 한가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자연에서의 생활을 무료해하는 것은 아니다.

06 '탁료계변(㉠)'은 잡은 물고기를 안주로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풍류의 공간으로 한가한 시적 화자의 삶을 보여 준다. '소정(㉡)'은 '작은 배'로, 그물을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던져 놓은 것으로 보아 생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일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 ㉡은 한가한 시적 화자의 삶을 보여 주는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 ㉡ 모두 시적 화자가 만족하는 공간이다.
② ㉠과 ㉡에서 시적 화자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고기잡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신다는 점에서, ㉡은 작은 배라는 점에서 풍족한 삶이 아니라 소박한 삶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07 [제1수]~[제4수]는 모두 '역군은이샷다'로 끝맺고 있다. 시적 화자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자신의 생활을 보여 준 뒤, 이러한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감사하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 덕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자연에서의 시적 화자의 삶을 제시하고, ⓐ에 담긴 시적 화자의 사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시적 화자의 생각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자연에서의 시적 화자의 삶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시적 화자의 생각을 제시하였으나, ⓐ에 담긴 시적 화자의 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중
시적 화자의 삶의 특성과 ⓐ에 담긴 시적 화자의 사상을 제시하지 않고, ⓐ의 사전적 의미만을 제시하였다.	하

08 '그물 실어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에는 고기잡이에는 큰 욕심이 없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의 시적 화자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에서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벗 삼아 여정을 즐기며 체념과 달관의 삶을 사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 소망을 그린 작품으로, 제시된 부분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④ 봄 하늘을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는 삶의 굳은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09 (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나)의 시적 화자는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의 삶에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다)에는 농부가 '무림산중'에서 노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자연과 벗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등에서, (나)는 '도화행화는 석양리예 퓌여 잇고 /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계절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계절의 흐름, (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에, (다)는 하루 동안의 농부의 구체적인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나)는 봄을 맞은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그에 대한 감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⑤ (나)는 '도화행화는 석양리예 퓌여 잇고 /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을 맞은 자연의 모습을, (다)는 '콧노래에',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힘든 노동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작품 이해하기

(나) 정극인, 「상춘곡」

이 작품은 아름다운 봄 경치와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를 노래한 가사이다.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제목의 뜻처럼 봄 풍경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면서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호가도를 노래한 가사의 첫 작품으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자연관에 영향을 주었다.

(다) 작자 미상, 「논밭 갈아 김 매고 ~」

이 작품은 농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 낸 사설시조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의 일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열거법을 통해 농부의 행동을 묘사한 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어 농민의 일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0 (가)에서 '자연'은 시적 화자가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나)에서 '자연'은 아름다운 봄 경치를 구경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다)의 농부가 힘든 농사일에도 콧노래를 부르다가 졸거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을 통해 (다)에서 '자연'이 여유와 흥겨움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와 달리 (가), (나)에 나타나는 자연은 여유와 흥겨움이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봄 경치를 구경하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자연은 모두 시적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다.
② (가)는 자연에서의 삶만 나타나 있을 뿐 속세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자연은 '홍진', 즉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나)의 시적 화자는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한고'라고 하여 속세의 사람들과 달리 자연 속에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③ (가), (나)의 자연이 사대부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공간이라면, (다)의 자연은 농부가 일을 하는 노동의 공간이다.
④ (가)에서 시적 화자가 여름에는 할 일이 없고 가을에는 유유자적 고기를 잡는 것으로 보아 (가)의 자연은 여유로운 공간이다. 반면 (다)의 자연은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분주한 공간이다.

11 (나)에서 시적 화자는 '새'가 봄을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운다고 하여 자신이 느끼는 봄의 흥취를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금린어'는 시적 화자의 풍류를 나타내는 소재일 뿐,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미친 흥'은 봄을 맞아 자연을 즐기는 기쁨, (나)의 '지락'은 봄을 맞아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나타낸다.
③ (가)의 '이 몸'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는 시적 화자 자신을, (나)의 '남자 몸'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시적 화자와 달리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④ (가)의 '역군은'은 '역시 임금의 은혜'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는 자연에서 편안한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의 '조화신공'은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는 조물주가 만든 아름다운 봄 경치를 보고 감탄하고 있다.
⑤ (가)의 '초당'은 억새나 짚 등으로 지붕을 만든 조그마한 집이며 (나)의 '수간모옥'은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이므로, 모두 소박하게 사는 시적 화자의 생활을 보여 준다.

12 (가)의 [제3수]에는 시적 화자가 고기를 잡으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때 고기잡이는 생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일거리이다. 〈보기〉는 각 수의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배 떠라 배 떠라', '닻 들어라 닻 들어라'와 같은 조흥구가 배의 운항에 맞추어 제시되어 있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기〉의 시적 화자가 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며 여유를 실컷 즐기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기잡이가 생업이 아니라 풍류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제3수]는 '추사(秋詞)'로,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가을의 정취를 그리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연시조는 각각 [추(秋) 1]과 [추(秋) 2]로, 가을 강에 배를 띄우는 흥취와 속세를 떠나 사는 가을 어부의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제3수]와 〈보기〉는 모두 가을의 경치를 그려내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가)의 [제3수] 중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와, 〈보기〉의 [추 2] 중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서 자연을 풍요로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제3수]와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강에 배를 띄워 고기잡이를 하며 유유자적하는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
④ (가)는 시적 화자가 자연에서 한가하게 사는 삶과 그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충의를 다지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시적 화자 개인의 삶만 드러나 있다.

참고 자료

윤선도, 「어부사시사」

이 작품은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춘, 하, 추, 동 각 10수씩 지은 총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배의 운항에 따라 조흥구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후렴구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보길도에 은거하며 한적하게 보내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13 (나)는 '홍진에 뭇친 분네 ~ 녯사롬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라고 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드러낸 다음,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세우 중에 프르도다'라며 봄 경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선경 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홍진에 뭇친 분네'라고 하여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며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②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에서 아름다운 봄 경치를 조물주가 만든 예술 작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녯사롬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홍진에 뭇친 분네 ~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에서 시적 화자는 옛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4 (다)는 중장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농부의 바쁜 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ㄹ). 이때 '허리에 차고', '둘러메고', '받쳐 놓고', '비우고', '피워 물고'와 같이 '-고'라는 연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ㄴ).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거나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힘든 농사일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낙천적인 농부의 태도를 알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ㄱ. '톡톡'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ㅁ. '논밭 → 산 → 집'이라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지만, 인물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에서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는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5 ㉡의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므로 '날만 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은 시적 화자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한 자'는 약 30.3cm를 뜻하므로 ㉠은 눈이 매우 많이 왔음을 나타낸다.
③ ㉢은 봄의 모든 사물이 야단스럽다는 뜻으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봄 경치에 몹시 감탄하였음을 나타낸다.
④ ㉣은 바지에 대님을 매고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맨다는 뜻으로, 논밭 일을 끝내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옷을 입는 모습이다.
⑤ ㉤은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은 뒤 담배를 문 채 잠시 조는 모습이다.

16 ⓐ는 시적 화자가 봄에 피어 있는 도화와 행화를 보는 때이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며, ⓑ는 농부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때이므로 즐겁게 귀가하는 시간이다.

평가 기준	평가
ⓐ와 ⓑ가 지닌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와 ⓑ가 지닌 시간적 배경의 의미 중 한 가지만을 제시하였다.	중
ⓐ와 ⓑ가 지닌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

03 웃음, 그 속에 담긴 현실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39쪽

1 O 2 O 3 X 4 X 5 O

확인 문제 241~255쪽

1 ② 2 ③ 3 ① 4 마름 5 ② 6 감참외 7 ③ 8 ⑤ 9 ② 10 ① 11 ⑤ 12 ③ 13 ① 14 데릴사위 15 ⑤ 16 할아버지 17 ④ 18 ①

1 이 글에는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나'가 데릴사위가 된 것을 '나'의 운명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 하고 있다.
③ "장인님! 인제 저……."로 시작하여,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라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을 띠고 있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④ '붙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에서 점순이의 외양을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제ㅡ미, 키두!"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답답함을 나타내는 등 해학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데릴사위제'라는 당시의 혼인 풍습이 드러나는 소재가 등장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2 '나'와 점순이를 성례시켜 주겠다는 핑계로 장인은 '나'의 노동력을 3년 7개월 동안 착취하고 있다. 이후에도 '성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이 작품에서 데릴사위제와 관련된 중심 소재는 '성례'이다.

오답 풀이 ① '봄'은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으로, 데릴사위제와는 관련이 없다.
② '키'는 '나'를 점순이와 성례시키지 않고 일만 시키려는 장인이 대는 핑계이다.
④ '농사'는 장인이 '나'를 시켜 하는 일이다.
⑤ '나'가 점순이와 빨리 성례를 하고 싶어 하는 데에서 점순이를 향한 '나'의 순박한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으나, 이는 데릴사위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

3 뺨을 때리고 난처해 하는 인물은 장인이다. 장인은 '나'의 뺨을 때리고서는 한창 일이 바쁜 때에 '나'가 뺨을 맞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버릴까 봐 난처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둘의 성례를 계속 미루기 때문이다.
④ 장인은 성례를 최대한 오래 미뤄 사경을 주지 않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⑤ 작년 이맘때, 장인은 성례를 시켜 달라며 일을 하지 않는 '나'와 갈등을 겪은 후에 성례를 올려 주겠다는 말로 회유한 적이 있다.

4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로, 장인이 배 참봉댁 마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뇌물을 받는 모습을 통해 마름의 횡포로 소작인이 고통받았던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5 장인이 사경도 주지 않고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는 것에서 장인의 교활한 성격을 알 수 있다. 장인의 권위적인 성격은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과 같이 어른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밥을 나르다가 자주 넘어져서 '나'에게 흙투성이 밥을 먹인다. 이를 통해 점순이는 경망스럽고 산만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장인은 점순이와의 성례를 이유로 '나'에게 사경을 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장인은 인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밥만 많이 먹게 되면 좋은 팔자라고 여긴다. 이를 통해 '나'는 순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올려 주겠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사경도 받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6 '나'는 키가 덜 자란 점순이를 보고 '이건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외 같다.'라고 묘사하는데, 이어지는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이쁘니까 말이다.'에서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난다.

7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청춘 남녀에게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연정의 계절이다. 이러한 계절적 배경은 '나'와 점순이가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됨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봄은 농사일이 바빠지는 시기로, 장인과 '나'가 갈등하는 계절적 배경이다. 농사일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봄이 왔지만 '나'와 점순이가 성례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와 장인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치르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의미로 제목 '봄-봄'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둘의 성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나 '나'가 어수룩함에서 벗어나 성숙할지는 알 수가 없다.

8 구장은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편을 들다가 장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자 장인의 눈치를 보며 태도를 바꾼다. 따라서 구장이 장인의 위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장인은 '빙장'이 '장인'보다 높임 표현인 줄 알고 밖에서는 나에게 빙장이라고 부르게 했다. 이를 통해 장인은 허세를 부리고 체면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구장은 긴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튀기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구장은 경박하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장인이 시키는 것을 자꾸 잊고 눈치를 줘야 겨우 깨닫는다. 이를 통해 '나'는 눈치가 없고 어수룩함을 알 수 있다.

9 '나'는 하루빨리 점순이와 성례를 올리고 싶어 한다.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핑계를 대며 성례를 미루는 것은 장인으로, '나'는 그런 장인에게도 장모의 키가 작음을 말하며 불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성례를 요구하지 못 하고 장인의 말에 회유당하며 일을 하고 있다.
③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④ 점순이는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하고 쏘아붙였지만 곧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산으로 도망을 쳤다.
⑤ 점순이가 '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현하며 충동질을 하는 이유는 점순이도 '나'와 성례를 치르고 싶기 때문이다.

10 뭉태는 '나'의 친구로, 장인의 교활한 속셈을 알고 '나'의 처지를 일깨우고 충고하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②, ③ 뭉태는 "밤낮 일만 해 주구 있을 테냐?", "네가 세 번째 사윈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등에서 '나'의 어리숙함에 대해 빈정거리고, 장인과의 갈등을 부추긴다.
④ 뭉태는 '나'의 장인이 소작하던 땅을 떼어간 일로 장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
⑤ 뭉태는 성례를 올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구는 '나'에게 장인의 속셈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나'는 뭉태의 말을 듣지 않는다.

11 구장이 '나'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구장은 '나'도 나이가 차서 아들이 급할 것이라며 '나'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② 구장은 성년은 스물한 살이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나'와 점순이는 아직은 결혼할 수 없다고 설득하고 있다.
③ 구장은 올가을에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했다는 장인의 말을 언급하며 '나'를 회유하고 있다.
④ 구장은 삼포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을 간 사례를 들어 농사가 바쁠 때 일을 안 하거나 남의 농사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 징역을 갈 수 있다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

12 장인은 '나'를 더 부려 먹기 위해 성례를 미루고 있는 것이지, 어수룩한 '나'가 미덥지 못해 성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가 어수룩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뭉태의 서술에 따르면 '나'가 일을 잘하고 어수룩해서 장인이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점순이에게 "쇰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라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였다.
② '나'는 구장을 찾아가고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걸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점순이는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나'에게 밥은 한 그릇만 담아 주지만, 밥보다 더 많이 담은 산나물을 주며 마음을 표현한다.

⑤ 점순이는 '나'에게 "쇰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나'를 충동질한다.

13 장인이 소작을 줬다가 빼앗은 건 구장이 아니라 뭉태이다. 구장은 소작을 부치고 있기 때문에 장인의 편을 들어 '나'를 회유하였다.

오답 풀이 ② 장인은 '나'에게 밥을 한 사발만 주도록 하였다. '나'에게 사경도 주지 않으면서 밥도 적게 주므로 장인은 인색하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장인은 첫째 딸의 데릴사위로 열네 명을 갈아들였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아 장인을 사위 부자라고 불렀다.
⑤ 장인은 인색한 성격으로, 머슴을 들이지 않고 '나'를 데릴사위로 두어 점순이와의 성례를 핑계 삼아 부려 먹고 있다.

14 이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는 '데릴사위'이다. 데릴사위는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기로 하고 삼은 사위를 말한다.

15 '나'는 순박하고 어수룩하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번번이 교활한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다. 또한 점순이의 충동질에 고무되어 점순이가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오해하고 장인과 몸싸움을 한다. 이 글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성숙한 '나'를 서술자로 삼음으로써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시점의 의미와 종류

시점은 소설 속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여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의미한다.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위치하는지, 작품 밖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뉜다.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함.
	1인칭 관찰자 시점	보조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함.
3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함.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하여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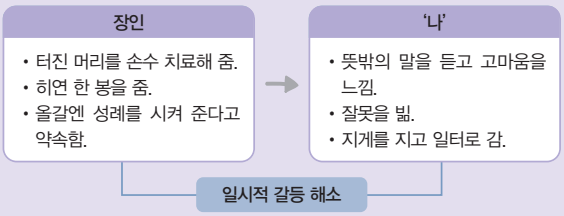
16 바짓가랑이를 잡히고 아파서 장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변화에서 상황의 다급함과 희극성이 고조되고 있다.

17 이 작품은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나'와 장인의 싸움의 우스꽝스러움을 극대화시켜 긴장감과 해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
②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한 구성이 사건의 이해를 돕는 것은 아니다.
③ 등장인물의 심리는 작품 전반에 나타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의 효과로 볼 수 없다.
⑤ 작품이 아직 마무리되기 전이므로 이러한 구성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장인과 '나'의 화해



'결말'에서는 '나'와 장인이 완전히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원인인 성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 또한 욕심 많은 장인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인과 '나'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8 점순이는 '나'와 성례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 '나'를 충동질했다가 정작 '나'와 아버지가 싸우자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점순이의 교활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사건이 독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희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점순이가 결국 아버지의 편을 들고 있으므로 '나'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점순이는 '나'에게 성례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것이지 아버지와 실제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
⑤ 점순이는 '나'와 성례를 올리고 싶은 '나'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268~271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⑤ 16 과장된 희극적 상황과 익살스러운 표현이 드러난다.

01 점순이는 성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나'에게 불만을 품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 성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이고, 점순이는 적극적이다.

오답 풀이 ① (나)를 통해 장인은 동리에서 마름을 하며 소작농들에게 인색하게 굴어 인심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점순이는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나'에게 성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충동질한 뒤에 얼굴이 발개져서 도망갔다. 이것으로 보아 점순이는 성례 이야기를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⑤ '나'는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바람에 삼 년 칠 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하고 있다.

02 '나'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모호한 약속만 믿고 데릴사위로 들어와 삼 년 칠 개월 동안 장인네 일을 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자 '나'와 장인은 갈등을 겪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성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나 내적 갈등은 아니다.
② 계절적 배경 때문에 겪는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가 소작농의 위치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점순이와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⑤ '나'는 사회 제도 때문에 지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인색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03 〈보기〉는 해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에서 '나'가 장인에게 따지는 중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라고 장모의 작은 체구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해학성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기집애년'과 같은 비속어가 사용되었으나, 해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나'가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해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나'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해학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와 장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해학성이 나타나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싸움 장면이 제시되지 않았다.

04 (나)에는 장인이 마름의 지위를 이용해서 동리의 소작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마름과 소작인의 지배 구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나'와 점순이가 내외를 하느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만, (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라)에서 '나'가 데릴사위로 들어오기 위해 사경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시에 데릴사위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지배 구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장벽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다)에서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05 장인과 '나'는 구장 앞에서 성례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장인이 '나'를 강한 위세로 누르려고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장모를 언급하며 받아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장인은 성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② 구장이 코를 파며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보아 '나'의 고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장인은 구장이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하자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린다. 이것으로 보아 성례에 대한 장인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구장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했다가 장인이 점순이가 안 자라서 그렇다며 화를 내자 장인의 눈치를 보며 장인 편을 드는 줏대 없는 태도를 보인다.

06 뒷머리를 긁적이는 행동은 자신이 없거나 자신의 잘못, 실수 등을 말할 때 하는 행동으로, ㉠에서 '나'가 뒤통수를 긁는 것은 장인에게 성례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망하고 쑥스러워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장인이 화를 낼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한 의지와 결의를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인은 삼 년 칠 개월 동안 성례를 올려 준다는 약속을 미루고 있으므로, 장인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가 장인에게 빨리 성례를 올려 달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하기 싫은 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07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는 '나'에게 사경을 주지도 않고, 머슴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밥을 많이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장인의 인색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극적 제시' 또는 '보여 주기'는 간접 제시 방법의 다른 명칭이다.
②, ④ 독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등으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간접 제시 방법이다.
③ 간접 제시 방법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가 상상을 통해 인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08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쫑알거리거나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라고 쏟아붙이는 점순이의 말에 사경을 받지 못하고 일만 하는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들으라는 듯 쫑알거리고 쏘아붙이며 성례에 소극적인 '나'를 질책하고 있다.
②, ③ 점순이가 '나'와 성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서는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점순이의 말들은 성례에 소극적이었던 '나'를 부추겨 '나'가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장을 찾아가게 만든다.

09 이 글은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이다.

오답 풀이 ② 전지적 작가가 주인공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③ 작품 밖의 관찰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논평하는 것은 편집자적 논평이다.
⑤ 작품 속 반동 인물 또는 주인공 외의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추측하여 제시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10 (라)에서 '나'는 갑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점순이의 모습에 당황하여 기운이 탁 꺾이어 얼빠진 등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나'의 편인 줄 알았던 점순이가 장인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장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마저 꺾였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성례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행동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충동질을 했다.
② '나'는 점순이가 '나'와 장인의 싸움을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까셀라 부다!"라고 하며 더욱 호기를 부리고 있다.
③ '나'가 장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해학성을 높여 독자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④ 점순이가 '나'에게 "쇰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가 성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 것이다.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장인과 싸우며 점순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어수룩함이 드러난다.

11 〈보기〉는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절정 사이에 결말을 삽입함으로써 절정에서 '나'와 장인의 희극적인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는다.

오답 풀이 ①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한 것은 독자에게 결말을 미리 알리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③ 결말에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④ 소설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면 소설의 구성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12 (라)에서 점순이가 '나'가 아닌 장인의 편을 드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보다 아버지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겨서이지 '나'와의 싸움으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을 것 같아 장인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자신의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장인 편을 드는 점순이의 모순적인 태도에 '나'는 충격을 받고, 이는 작품의 희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③, ④ 점순이는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싸우라고 '나'를 충동질해 놓고는 막상 '나'가 장인과 싸우자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라고 아버지 편을 들며 '나'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운다.

13 '나'는 몰래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었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시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②, ④ 장인이나 점순이에게 복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③ 몰래 '나'를 지켜보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점순이에게 경고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14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게 못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마음을 이르는 속담으로, 자신의 편을 들 줄 알았던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어 망연자실한 '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④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으며, 서로 오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15 '빙장'은 다른 사람의 장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16 (다)에는 '나'와 장인의 싸움이 과장되어 희극적 상황이 나타나고, 그 싸움 속에서 '나'가 장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이 드러난다.

평가 기준	평가
해학적 요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해학적 요소 중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해학적 요소 중 한 가지를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1

276~280쪽

01 ② **02** ③ **03** ① **04**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보기〉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05** ① **06** ③ **07** ④ **08** ② **09** ⓐ는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고, ⓑ는 농민이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생활 공간이다. **10** ③ **11** ④ **12** ② **13** ⑤ **14** 점순이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갑다. **15** ④

01 (가)는 부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재회의 소망이 아니라 임과 이별하기 싫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 죽은 누이와의 재회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1~4연, 5~8연, 9~14연으로, (나)는 1~4행, 5~8행, 9~10행으로 나눌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반면 (나)에서는 '미타찰'이라는 불교 용어를 사용하였고, 도를 닦으면서 재회의 날을 기다리겠다는 표현을 통해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는 대동강을 건너 떠난 임과 시적 화자의 이별을 소재로 하고, (나)는 누이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종교적 극복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가)는 시적 화자가 삶의 터전인 '서경'과 생업인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쫓아가겠다며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나)는 '이른 바람'과 '가는 곳 모르온저'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2 (가)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다. (다)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을 통해 시적 화자가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서경이 V 셔울히 V 마르는', (다)는 '나 보기가 V 역겨워 V 가실 때에는'과 같이 세 번 끊어 읽게 되는 3음보 율격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서경', '대동강', (다)의 '영변'은 모두 실제 지명으로,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④ (가)는 후렴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를 통해, (다)는 1연과 4연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가)의 시적 화자는 배를 내어 놓아 임이 대동강을 건널 수 있게 한 사공을 탓하고 있고 (다)의 시적 화자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별의 원인을 시적 화자인 자신에게 두고 있다.

03 바위에 떨어져 깨지는 구슬과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을 대조하여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연물인 바위는 방해물, 꽃은 임이 만날 새로운 여인을 비유하지만 인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③ 반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긴힛ᄯᅳᆫ 아즐가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신(信)잇ᄃᆞᆫ 아즐가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에서 설의법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대상에 대한 질투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후렴구로 의성어(악기 소리)이고 경쾌한 리듬감을 나타내지만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04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의 시적 화자는 임을 따라가겠다며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보기〉의 시적 화자는 떨어진 눈물로 대동강 물이 넘친다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 중 한 가지만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하

참고 자료

정지상, 「송인」

이 작품은 고려 시대의 문인인 정지상의 한시로, 이별의 슬픔을 자연물에 대응시켜 표현하였다.

갈래	한시, 7언 절구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소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슬픔
특징	• 도치법과 과장법을 통해 이별의 한을 극대화함. • 이별의 슬픔을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하여 강조함.

05 (가)는 '이 몸이 서늘하옴도'에서 촉각적 심상, '눈 깊이 한 자가 넘네'에서 시각적 심상, (나)는 '도화행화는 석양리예 퓌여 잇고'에서 시각적 심상, '수풀에 우ᄂᆞᆫ 새'에서 청각적 심상, (다)는 '콧노래', '긴 소리 짧은 소리'에 청각적 심상, '석양이 재 넘어갈 제'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② 풍류를 즐기는 자연적 공간은 (가)와 (나)에서 드러난다.
③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은 (가), (나), (다)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설의적 표현은 (나)의 '녯사ᄅᆞᆷ 풍류(風流)ᄅᆞᆯ 미출가 못 미출가'에 나타나 있다.
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은 (가)에서 드러난다.

06 (가)는 '역군은(亦君恩)이샷다'를 통해 조선 사대부의 유교적 이념인 충의를 드러낸다. (나)는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각 계절에 해당하는 생활 모습을 표현하였으나, 사계절이 변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나)는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가)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사대부이고, (나)는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이다.
④ (가)에서 시적 화자가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띄워 던져두는 것은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를 하기 위함이다.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생계를 잠시 내려두고 자연을 즐기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대조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에서는 '수풀에 우ᄂᆞᆫ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봄의 경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07 ㄴ. (가)에는 각 계절에 맞게 생활하는 시적 화자의 생활 모습이, (다)에는 여름에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ㄷ. (가)는 '유신(有信)한 강파'에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다)는 농부의 일과를 열거법으로 나타냈다.
ㅁ. (가)에서는 '탁료계변(濁醪溪邊)', '금린어(錦鱗魚)'를 통해 시적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다)에서는 농부의 일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의 인물은 사대부가 아니라 농부이다.
ㄹ. (가)에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는 '콧노래',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08 ㉡에서는 시적 화자의 무료함이 아니라 한가로움이나 즐거움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 '강호'는 자연으로 시적 화자가 안분지족을 느끼는 삶의 공간이다.
③, ⑤ ㉢, ㉣에서는 '역군은(易君恩)이샷다'를 통해 임금에게 감사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의 '삿갓'과 '누역'(도롱이, 비옷)에 겨울을 나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모습이 담겨 있다.

09 (나)의 시적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으므로, '산림'은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 풍류를 즐기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의 농부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으므로, '무림산중'은 농민이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평가
ⓐ와 ⓑ의 상징적 의미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상
ⓐ와 ⓑ 중 한 가지만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중
ⓐ와 ⓑ의 상징적 의미를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독자들은 '나'가 전해 주는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의 생각을 전부 알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어 독자들은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이상, 독자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 파악한다.
④ 독자는 1인칭 주인공의 제한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⑤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일 때 '나'가 어리숙한 성격일수록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독자는 상황 맥락을 살펴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11 '나'와 장인이 맺은 애초의 계약은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하는 것이다. 살림을 내준다는 말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가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도 '나'와 성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쇰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를 통해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지만, 점순이가 혼자서 쫑알거리거나 '나'가 공중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둘은 내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를 통해 '나'는 점순이네에서 돈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를 통해 장인의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 글은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봄은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나)에서 '나'는 봄을 맞아 들뜬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ㄱ). 또한 (다), (라)의 대화 상황에서 드러나듯 '나'와 점순이는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된다(ㄹ).

오답 풀이 ㄴ. '봄'이 '나'와 점순이의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ㄷ. 계절 순환의 원리와 소설의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성례를 두고 매년 봄마다 장인과 '나'가 갈등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3 '심판'은 '어떤 일이나 사실의 원인, 또는 그런 형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는 '짜장의 방언. 과연 정말로'의 뜻이다.
② ⓑ는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다'의 뜻이다.
③ ⓒ는 '옆으로'의 뜻이다.
④ ⓓ는 '몹시 올차고 야무지다'의 뜻이다.

14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라고 말하며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질을 치는 점순이를 보고 '나'는 어떻게 되는 사정인지 몰라서 그 뒷모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점순이가 부쩍 자란 듯싶어 반가워한다. 따라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나'의 심리를 〈조건〉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의 심리와 〈조건〉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나'의 심리와 〈조건〉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이 글에서 '나'의 갈등 대상은 장인님이고, 〈보기〉에서 홍보의 갈등 대상은 매품을 팔기 위해 가난을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나'는 성례에 나서지 못 하고, 〈보기〉의 홍보도 매품팔기에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② 이 글의 '나'와 〈보기〉의 홍보는 모두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외적 갈등을 겪으며 사건 전개를 이끈다.
③ 이 글의 '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장님에게 갔으나 해결하지 못하였고, 〈보기〉의 홍보도 매품을 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⑤ 이 글의 '나'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장인님과의 계약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는 어리숙함으로, 〈보기〉의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가난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❷ 281~285쪽

01 ④ **02** ④ **03** ① **04**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나)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모습과, 순종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05** ② **06** ⑤ **07** ⑤ **08** ⓐ,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는 '낙엽', '달', '박주산채'이고, 이들의 공통적 의미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다. **09** ① **10** ③ **11** ① **12** ④ **13** 구장은 마름인 장인에게 땅 두 마지기를 얻어 부치는 처지여서 구장에게 밉보였다가 농사를 짓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4** ⑤

01 (가)는 '서경', '대동강', (다)는 '영변', '약산'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다)는 연인을 잃은 이별의 슬픔, (나)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② (가), (다)는 3음보 율격, (다)는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였다.
③ (가)는 고려 시대, (나)는 신라 시대, (다)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쓰인 시다.
⑤ (나)의 9행에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지만 (다)에는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2 (가)의 시적 화자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이별을 거부한다. (다)의 시적 화자는 사랑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다)의 시적 화자가 영변의 약산에서 진달래꽃을 따다가 임이 가시는 길에 뿌리는 행동은 임을 붙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떠나는 임의 앞날을 축복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시적 화자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깨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를 통해 (다)의 시적 화자는 임이 자신을 싫어해서 떠난다고 하면 보내 줄 생각을 하고 있다.
③, ⑤ (가)의 시적 화자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려고 하자 배를 내어놓은 사공에게 사공의 부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배를 내어놓았냐며 사공을 원망하는 말을 한다.

03 '쇼셩경 고외마른(서경을 사랑하지만)'을 통해 시적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는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할 바에는 생업인 '질삼뵈'를 버리고라도 임에게 가겠다는 뜻이고, 시적 화자와 임의 이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 '긴(끈)'과 대조된다.
④ ⓓ는 사공의 아내가 염려되어서 사공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공의 배를 타고 임이 대동강을 건널까 봐 걱정되어서 사공이 배를 몰지 못하게 사공의 아내를 모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시적 화자가 꽃을 꺾겠다는 말이 아니라 임이 새로운 여자를 만날 것임을 빗댄 표현이다.

04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적극적',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소극적', '수용', '순응', '순종', '인내' 등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가)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적극적',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는 '수용(순응)', '소극적', '순종', '인내' 등의 단어가 들어가고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 중 하나만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ㄱ. (가)의 시적 화자는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를 통해 자연을 즐기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ㄷ. (나)의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 녹양방초(錄樣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 대구법을 사용하여 봄을 맞이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ㅁ. (가)는 각 수에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생활과 임금에 대한 충의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ㄴ. (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가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ㄹ. (다)에서는 열거법을 사용해 농부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ㅂ. (가), (나), (다) 모두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06 (나)는 '홍진'과 '산림'이라는 대립되는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속세와 자연의 대비를 통해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사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고, 속세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③ (나)는 봄에 대한 경치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④ 사대부로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은 (가)이다.

07 ㉠은 안분지족을 느끼는 개인적 삶의 공간이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유교적 충의의 공간이다. ⑤의 '강산'도 시적 화자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고려 말의 시대 상황을 자연물에 빗대어 기울어 가는 고려의 운명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시조로, '백설'은 고려 유신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이 작품은 자연은 변하지 않았으나 고려는 망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조로, '산천'은 자연의 변함없는 항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변하지 않는 다섯의 벗을 찬양한 연시조로, '솔'은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이 작품은 두류산(지리산) 양단수의 경치를 예찬하며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조로, '두류산 양단수'는 시적 화자가 감상하고 있는 경치에 해당한다.

08 ⓐ와 ⓑ는 시적 화자의 소박한 생활 모습이 담긴 소재이고 〈보기〉에서는 '낙엽', '달', '박주산채'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평가
ⓐ와 ⓑ에 해당하는 소재들과 공통된 의미를 모두 서술하였다.	상
ⓐ와 ⓑ에 해당하는 소재 중 일부만 서술하고, 공통된 의미를 서술하였다.	중
ⓐ와 ⓑ에 해당하는 소재 중 일부만 서술하고, 공통된 의미를 서술하지 못했다.	하

09 '쌍욕을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 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라고 말한 '나'의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장인은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성례 문제를 미루는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하고자 사경을 내라며 위협한다.
③ 뭉태의 말을 통해 구장이 장인에게서 땅을 얻어 부치고 있어서 장인 편을 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빙장님의 말씀이 올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와 같이 구장은 가을에 장인이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던 일을 마저 하라고 '나'를 회유한다.
⑤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등의 대화를 통해 법률적 지식을 근거로 '나'를 협박하고 설득하는 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0 이 글의 서술자는 일상적인 구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수룩한 서술자인 '나'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루어지는 언행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② '빙모님'과 '참새만 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 문장에 같이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④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와 같은 토속어와 '기집애년', '참새만 한 것'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농촌의 향토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서술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괄호 안에 자신의 생각을 부가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읽는 재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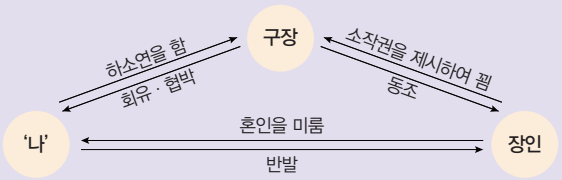
11 장인은 '나'를 데릴사위 삼아 점순이와의 성례는 미루면서 사경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인물로, '나'가 성례를 올려 주거나 사경을 내라고 하자 구장에게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게 시켜 '나'가 다시 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면모로 보아 장인이 음흉하고 교활한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2 '나'는 번번이 성례 약속을 어기는 장인을 이끌고 구장을 찾아가는데, 이는 구장의 도움으로 성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오히려 구장이 장인의 눈치를 보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②, ③ '나'의 밀린 새경을 정확히 계산한다든가 구장 앞에서 다시 계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
⑤ '나'와 구장이 점순의 키가 자라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구장의 역할



구장은 '나'가 성례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인물로, 중재자 또는 판단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살스런 인물로 묘사된 구장은 온전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줏대 없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은 장인 편에 서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장의 모습은 소작인으로서 마름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현실과 힘을 이용해 '나'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장인의 비인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3 〈보기〉는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인 '지주 – 마름 – 소작인'의 지배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장은 처음에는 '나'의 편에서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하다가 줏대 없이 장인의 편에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는데, 〈보기〉를 고려할 때 구장도 '나'의 장인에게서 땅을 얻어 부치는 소작인이기 때문에 소작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름인 장인의 눈치를 보고 장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보기〉에 제시된 농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구장과 마름인 장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장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구장과 마름인 장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장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장인이 마름이라서'와 같이 구장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완성되지 못한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하

14 이 글의 작가는 '나'를, 〈보기〉의 작가는 홍보를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현대 소설 「봄·봄」과 고전 소설 「홍보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해학이다. 해학은 대상의 모자라고 엉뚱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아서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장인이 데릴사위제를 이용해 순진한 '나'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것을 통해 데릴사위제가 존재하는 봉건적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보기〉에서 홍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면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매품을 팔아야 생계를 이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시 백성들의 삶이 궁핍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나'는 성례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서러움이나 슬픔을, 〈보기〉의 홍보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매품을 팔려고 했던 자신의 처지에 서러움이나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④ 이 글은 '나'와 장인의 갈등이 드러나지만, 〈보기〉는 홍보와 아내의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5 서로 다른 시선, 함께 찾아가는 삶

01 주제 통합적 읽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89쪽

1 O 2 O 3 X 4 O 5 O

확인 문제 291~299쪽

1 ⑤ **2** ⑤ **3** ㉠, ㉢ **4** ⑤ **5** (1) 투표 (2) 경제 **6** 건강과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 **7** ② **8** ⑤ **9** 심리적 만족감, 가치관 **10** ④ **11** ③ **12** 고귀한 삶의 방식 **13** ② **14** (1) O (2) X **15** ㉠, ㉡, ㉣

1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해 글을 전개한다. 가는 설명하는 글로 정의, 구체적 자료 제시 등의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의 (가)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뜻을 정의하고 있고, (다)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이나 깨달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제시하는 글은 수필이다.
② 기존과 달라진 소비자의 역할만 드러날 뿐 부정적인 사회 현실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글쓴이의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례를 열거한 후 이를 일반화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는 설명하는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시된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2 (다)에서 보면 환경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발 도상국을 돕는 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소비가 점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를 통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재화의 품질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처음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 시스템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3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소비 시스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를 말한다.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나 친환경적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나의 글쓴이는 기존에는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했지만,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흔히 합리적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합리적 소비는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소비 습관이라고 하였을 뿐, 합리적 소비자가 되는 일이 어렵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③ 교과서에서부터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에서까지 늘 합리적 소비를 강조한다고 하였으므로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등이 소비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사람,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눈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사람을 멀리해야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5 (1) 가의 (마)에서 글쓴이는 소비가 필수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투표'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2) 나에서 기존에는 소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경제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6 (마)에서 소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쟁점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소비가 건강,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7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글쓴이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이에 대한 반박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이제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라는 말이 유행한 것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리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와 (다)에서 사례를 제시하여 과거와 달라진 소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다)에서 설문 조사 자료와 그 출처를 밝혀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장하는 글의 개념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전개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다.
-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읽는다.

8 (나)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이고, 각자 자신의 기준에서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 충족 여부에 따라 합리적 소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품질과 가격, 디자인 중에서 우선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취향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이제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요소에 따라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도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9 (나)에서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라고 하였고, (다)에서는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의 새로운 판단 기준은 '심리적 만족감', '가치관'이다.

10 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 제시한 수필이다. 통념에 대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 너머를 내다보다 연말의 거리를 떠올린 경험이, (다)에서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서 부엌 창 너머의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를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떠올리고, (나)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연상한다.
③ 유명 인사인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⑤ (다)에서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수필의 특징

사실적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드러남.
개성적	글쓴이의 가치관, 생활, 정서, 말투 등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남.
주관적	경험을 통해 얻은 글쓴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로 표현함.
비전문적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음.
신변잡기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음.
자유로운 형식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음.

11 (나)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소박한 집과 생활을 보고 측은이나 가난 같은 낱말은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추수 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새해 무렵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쇼핑 기간이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동으로 과도한 소비가 언제까지고 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자연스레 생겼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 주는 집과 소박한 생활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다)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무소유가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것임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12 (다)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했는데, 이는 영화를 보며 느낀 감동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소박한 집과 생활을 보며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 하였으므로, ㉠은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13 (바)에서 '소비하는 삶'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라)에는 글쓴이가 접시를 꺼내려고 찬장 문을 열었다가 정작 사용하는 접시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마)에는 글쓴이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했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고 있다.
③ (바)에서 '좀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문형 문장으로 독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권유하고 있다.
④ (바)에서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뒤이어 도시락이나 음료를 미리 챙겨서 나서면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했지만 실패했던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바)에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14 (1) (라)에서, 글쓴이는 많은 접시 가운데 실제 사용하는 접시는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마)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며 한 달에 하루를 정해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다.

15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바)에 잘 드러난다. 미리 도시락이나 음료를 챙기는 것(㉠)처럼 길을 떠나기 전에 끼니가 될 만한 걸 가방(봇짐) 속에 넣는 일(㉡), 즉 미리 준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낯설고 번거롭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소단원 평가 310~313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①
08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09** ⑤ **10** ②

01 (가)는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며 읽어야 하고, (나)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제시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다)는 수필이므로 글쓴이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감상하며 읽어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다)는 모두 동일한 소재인 '소비'에 대한 글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가)는 윤리적 소비, (나)는 합리적 소비, (다)는 최소한의 소비에 대한 내용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② (가)는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과 확산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합리적 소비 판단의 기준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으며, '합리적'의 기준은 변화하므로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글이다. (다)는 수필로, 글쓴이가 유명 인사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던 경험이나, 찬장의 그릇들을 보며 자신의 소비를 반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③ (가)는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등장 배경 및 확산 상황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나)는 과거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소비할 때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함을 근거로 제시하여 들어 소비 기준이 변화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④ (가)는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를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가심비'라는 말이 유행한 사례를 통해 요즘 사람들의 소비 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 (다)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경험과 접시를 꺼내려 찬장 문을 열었던 경험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02 (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 시스템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작동한다는 내용과 소비자의 역할은 드러나지만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그동안 소비자는 주로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떤 것이 그런 역할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를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⑤ 환경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발 도상국을 돕는 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환경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발 도상국을 돕는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나 그 이유는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나)는 기존에는 경제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소비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소비를 한다는 소비 기준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설명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합리적 소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합리적 소비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소비 습관이지만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기존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합리적 소비를 판단했지만,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이런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④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가심비'라는 단어를 사례로 들어 요즘 사람들이 소비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임을 말하고 있다.

04 (다)의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영화에 소개된 세이모어의 소박한 생활에서 고귀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감동을 받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영화가 창의적인 내용이었다는 감상은 (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다)의 첫 번째 문단의 사사키 후미오의 집도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집 내부와 비슷했다는 내용과 한 가지 물건을 탁자로, 밥상으로, 디딤판으로도 쓴다는 내용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소박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찬장마다 그득한 많은 그릇 가운데 그릇으로 쓰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그릇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첫 번째 문단에서 세이모어의 멋진 연주와 깊은 철학이 담긴 대사에도 감명받았지만,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 주는 집이 특히나 감동이었다고 하였다.
⑤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찬장에 있는 접시 중 실제로 사용하는 접시는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보기〉의 글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빌려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진정한 자기 소유는 없으며, 언젠가는 모두 빌려온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한 것들을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글쓴이는 소비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소비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보기〉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하는 물건 또한 빌려온 것이므로 결국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빌려온 물건으로 하는 것이 된다.

③ (나)의 글쓴이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 충족 여부에 따라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는데, 〈보기〉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물건도 역시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는 빌린 물건이다.

④ 〈보기〉의 글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빌린 것인데,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다)의 글쓴이 역시 유명 인사들의 삶에서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자신의 소비에 대해 반성하며 꼭 필요한 것의 기준을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소유에 대한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된 것이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진정한 자기 소유는 없으며, 모두 빌려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영화를 본 경험과 찬장에 쌓인 그릇을 보았던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참고 자료

이곡, 「차마설(借馬說)」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소유에 관한 성찰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교훈적 수필이다. 빌려 탄 말의 상태에 따른 자신의 심리 변화를 살피고, 세상 만물은 모두 잠시 빌리는 것이므로 그릇된 소유의 욕구를 경계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갈래	고전 수필(설)
성격	교훈적, 철학적, 우의적
주제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올바른 삶의 자세
특징	• '경험(사실) – 의견(경험의 일반화)'의 2단 구성 방식이 나타남. • 유추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함.

06 (나)의 글쓴이는 과거와 달라진 요즘 소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 소비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현재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는 물건이 흔하지 않은 과거에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요즘은 편리하고 풍족한 삶에 익숙해져 소비하는 삶이 일반화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비하는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긍정적 구매 행동, 부정적 구매 행동, 제품 및 서비스의 충분한 비교를 통한 구매, 생활 협동조합 등을 매개로 한 관계적 구매, 지속 가능한 구매 등의 사례를 들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최근의 소비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다)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④ (가)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우선순위에 따라 윤리적 소비를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역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이들은 자신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제품을 소비할 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07 (가)의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 사회적 문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의 글쓴이는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가)의 글쓴이에게 가치관에 따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더라도 자신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글쓴이는 합리적 소비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사회적으로 합리된 윤리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데, 이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합리적 소비 기준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소비가 심리적 만족감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④ (나)의 글쓴이는 최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사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소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나)의 글쓴이가 사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조언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⑤ (나)의 글쓴이는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났다고 하였으므로,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다양한 합리적 소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소비자 윤리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08 (나)의 주제는 두 번째 문단에 잘 드러난다. 글쓴이는 각자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본문에 있는 말을 활용하여 서술하였고, '합리적 소비는 ~해야 한다.'의 형식인 110여절의 문장으로 썼다.	상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썼지만 본문에 있는 말을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조건〉에 제시된 형식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썼지만 본문에 있는 말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도 갖추지 못하였다.	하

09 (다)는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는 삶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다)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고 반응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소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의 내용으로 보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를 지향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④ (나)의 내용으로 보아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 기준(심리적 만족감,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이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를 읽고 자신의 취향을 고려하거나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사례로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긍정적 구매 행동',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그런 상품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벌이는 '부정적 구매 행동', 제품 및 서비스의 충분한 비교를 통한 구매, 생활 협동조합 등을 매개로 한 관계적 구매, 지속 가능한 구매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의 선호와 관계 없이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긍정적인 구매 행동' 또는 지속 가능한 구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생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긍정적인 구매 행동'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④, ⑤ 비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는 '부정적 구매 운동'의 사례이다.

02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315쪽

1 O **2** O **3** X **4** X **5** O

확인 문제 317~323쪽

1 ⑤ **2** 가사실, 지원금 **3** ② **4** ① **5** 도서부장 **6** ② **7** (1) X (2) O (3) O **8** 책임감 **9** ① **10** ④ **11** (1) 음료 (2) 일거리

1 가사실이 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사실에서 독서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도서부의 입장이다. 현재는 가사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가사실의 소음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방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제과제빵 동아리는 현재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학교의 실습실을 구했을 때만 겨우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의 실습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하여, 언제든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④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도서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도서부는 가사실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2 이 협상의 쟁점은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이다. 사용하지 않던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동아리에게 가사실 이용 권한과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두고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양측이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3 여러 대안을 재구성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는 협상의 단계 중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협상의 '조정' 단계는 양측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이다(③). 이 단계에서는 우선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다(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①), 이를 서로 검토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④).

4 동아리 부장은 학생회에서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가 사용하고 대신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음료도 함께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가사실에 매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지도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두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자는 대안에 동의하고, 두 동아리가 서로 시간을 정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제과·제빵 동아리가 만든 과자와 빵을 무료로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④, ⑤ 사서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지도 교사는 이에 동의하여 두 동아리가 서로 시간을 정해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5 도서부장은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밀가루도 날리고 지저분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상대를 비방하는 말로,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적절하지 않은 대화 태도이다.

6 협상을 할 때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사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협상은 사회적 소통 방식이므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하고(④), 거짓된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⑤).

7 (1) 지도 교사의 발언을 보면,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설치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

는 비용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사서 교사가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후에, 도서부장은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했다며 사과하고 있다.
(3) 동아리 부장은 도서관 운영 시간을 고려해서 도서부가 아침과 점심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그 외 시간에 가사실을 사용하자며 가사실 이용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8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9 협상은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갈등을 유발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협상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협상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 협상은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⑤ 협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0 양측은 협상을 통해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가사실에 있는 가구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동아리 지원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으로 책 카페를 꾸미기 위한 방안이므로, '책 카페'를 운영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책 카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② 책 카페를 꾸미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함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도서부는 책을 많이 대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이용권을 모은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⑤ 제과·제빵 동아리는 자신들이 만든 간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1 (1) 동아리 부장은 책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새로운 도서를 구매하는 비용을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
(2) 도서부장은 책 카페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책 카페를 운영하면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 일거리가 늘어나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활동 2 확인 문제 328쪽

1 ④ **2** 해결 **3** ㉡ – ㉢ – ㉠ **4** ⑤ **5** ⑤ **6** (1) O (2) X (3) O **7** ③ **8**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

1 협상은 이익과 주장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은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과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 차이가 발생했을 때(③), 이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②)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⑤).

2 협상은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3 협상의 시작 단계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조정 단계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검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4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이 얼마나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측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측이 제시할 조건이나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협상을 준비할 때는 우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양보할 수 있는 지점(②)과 없는 지점을 분명히 정하고(③),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가능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④).

5 협상의 주제는 양측이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 있고, 서로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협상보다는 토의의 주제로 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아파트에서 악기 연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다.
②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다.
③ 아파트 내 안내 방송 시간을 변경하려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다.
④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주제로 적절하다.

6 (1) 협상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므로, 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하며 듣고 말해야 한다.
(2)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3) 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얻은 결과이다.

7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상대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대측의 제안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상대측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오답 풀이 협상을 진행할 때는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②), 상대측의 요구와 목적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①). 그리고 상대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④),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⑤).

8 협상을 할 때는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334~337쪽

01 ④ **02** ③ **03** ④ **04**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가사실과 동아리 지원금을 어느 동아리에서 사용할 것인가?) **05** ② **06** ① **07** ⑤ **08** ③ **09** ⑤ **10**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해야 한다. **11** ②

01 이 대화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인 '협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사실 확인 등을 하기 위해 직접 대상자를 만나 질문을 하는 말하기는 면담이다.
② 자신이 관찰·조사하였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 주는 말하기는 보고하는 말하기이다.
③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른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말하기는 토의이다.
⑤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히는 말하기는 토론이다.

02 학교에서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사실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는 모두 이 조건을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과제빵 동아리의 지도 교사와 동아리 부장, 그리고 도서부의 사서 교사와 도서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② 학교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사실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모두 신청을 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④ 제과제빵 동아리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언제든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지원금으로는 오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도서부는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새 책 구입 비용이 필요함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⑤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오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도서부는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03 (나)에서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진행 절차 중 조정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는 시작 단계로, 이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②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는 조정 단계이므로 [A]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시작 단계이므로,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며, (나)는 시작 단계가 아니라 조정 단계이다.
⑤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단계가 해결 단계인 것은 맞지만, (나)는 해결 단계가 아니라 조정 단계이다.

04 이 협상의 쟁점은 (가)의 지도 교사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가사실 공간의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 중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두 동아리가 협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쟁점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썼고, 7어절의 의문문 형식으로 썼다.	상
쟁점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썼거나, 두 가지 모두 썼지만 7어절의 의문문 형식으로 쓰지 못했다.	중
쟁점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썼으며, 7어절의 의문문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하

05 도서부장은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를 객관적 통계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료의 출처 또한 밝히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지도 교사는 학교에서 가사실 관리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함께 동아리 지원금을 준다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한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가사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하며 협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③ (가)에서 사서 교사는 두 동아리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도서부장과 동아리 부장의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한 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다.
④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조리 시설과 수도 시설을 갖추었다는 가사실의 공간적 특수성을 언급한 후, 제과제빵 동아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용

도에 맞게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바꾼다면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으로 인해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제시며,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에서 도서부장은 동아리 시간에는 도서부도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사실을 다른 동아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이외에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느라 동아리 부원들이 오가면 그로 인해 소음이 생기고, 결국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06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바꾼다면 학교에 별로 없는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일뿐더러 용도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동아리 부장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에서 도서 부장은 동아리 활동 준비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 때문에 제과 · 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에서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제과 · 제빵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과자와 빵을 무료로 제공하겠고 제안하였다.
④ Ⓒ에서 사서 교사는 가사실을 이용하길 원하는 두 동아리의 처지를 모두 고려하여, 가사실을 새로운 공간인 스터디 카페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⑤ Ⓓ에서 지도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자는 사서 교사의 제안에 동의하며, 이를 보완하여 두 동아리가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07 협상을 할 때는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상대측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 요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협상을 할 때는 상대측의 요구와 목적을 바르게 파악하고(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③). 그리고 상대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④).

08 동아리 시간에 제과 · 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밀가루도 날리고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도서부장의 발언에 대해 동아리 부장은 편견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두 동아리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꾸어 제과·제빵 동아리가 직접 만든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두 동아리 모두 동의하였다.
② 책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도서부에서 해야 할 일거리들이 늘어난다는 도서부장에 말에, 동아리 부장은 학생회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일거리들이 늘어난다는 도서부장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④ 두 동아리는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꾼 뒤 서로 시간을 정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한 뒤 책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고, 책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금액은 음료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09 도서부장은 제과 · 제빵 동아리의 실습으로 인해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며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발언이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과·제빵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사례를 근거로 성급하게 일반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
③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했을 때 생길 문제점에 관한 언급은 제과·제빵 동아리에 대한 비방으로, 개인적 약점을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원금의 액수에 대해 언급했을 뿐, 제과·제빵 동아리의 의도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협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대화 방법은 (가)의 '사서 교사'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사서 교사'는 좋은 의도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모인 자리이므로 서로를 비방하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아울러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협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본문 (가)에 있는 말을 활용하여 정해진 형식의 6어절 문장으로 썼다.	상
협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했지만, 본문에 있는 말을 활용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문장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중
협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포함하였고, 조건에서 제시한 형식의 6어절 문장으로 쓰지 않았다.	하

11 〈보기〉는 반려동물 키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협상에서는 양측의 양보와 조정을 통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허용하되 이와 관련된 여러 규약을 만들어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협상 또한 양측의 양보와 조정 과정을 통해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꾸어 두 동아리가 서로 사용할 시간을 정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두 협상 모두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본문과 〈보기〉의 협상은 모두 양측이 서로 양보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다.
③ 본문에 제시된 협상의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함으로써 책 카페 운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보기〉의 경우에는 타협을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일 뿐,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본문의 협상과 〈보기〉 모두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것도 아니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⑤ 본문의 협상에서는 양측의 견해와 요구 사항을 서로 조정하여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기〉의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두 입장에서 내세우는 견해나 요구 사항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논증하는 글 쓰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339쪽

1 X 2 O 3 O 4 O 5 X

활동 1 확인 문제 342쪽

1 ③ 2 ⑤ 3 ④ 4 잊힐 권리 5 ④ 6 ④ 7 (1) X (2) O 8 ②

1 이 글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글의 목적 역시 독자의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유럽 연합이 '삭제권'을 명시한 것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②, ④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⑤ 이 글은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 이 글의 결론에서는 앞서 전개한 논지를 간략하게 제시한 후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②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③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개인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주장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④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유럽 연합의 '삭제권' 명시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등을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이 글에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가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의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라는 내용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2014년에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였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졌음을 알 수 있다.
⑤ 세 번째 문단에서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이다.

4 이 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5 글쓴이는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헌법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많은 사람이 알권리의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배경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글에는 논증의 요소에 포함되는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추가할 수 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 글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주장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 번째 문단에 이미 제시된 내용이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삭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생긴 문제점의 여러 유형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⑤ 개인 정보 검증 과정이 발전되었다는 내용은 개인의 잊힐 권리가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문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만 이 글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7 (1) 삭제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므로 법에 대한 신뢰와는 관련이 없다.
(2)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유럽 연합이 '삭제권'을 명시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권리 시범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8 논증의 요소에는 필자가 내세우는 의견인 '주장'(①),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④),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③), 필자의 주장에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⑤)과 이에 대한 반박이 포함된다. 주장이 수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논증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 2 확인 문제 346쪽

1 ④ **2** 반론 **3** (1) X (2) O (3) O (4) X

1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성과 객관성, 사실성, 신뢰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주장 및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을 의미하는 필연성은 관련이 없다.

2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이나 이유, 근거에 대해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 즉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 예상 독자와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구성한다.
-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에 따라 글을 구성한다.
- 논증 요소와 이들 요소 간의 관계, 알맞은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3 (1) 삼단 논법은 연역에 해당한다.
(2)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3)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고,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다.
(4) 귀납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다. 반드시 참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평가 352~355쪽

01 ② **02** ② **03** ① **04**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 **05** ④ **06** ③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① **14** ⑤ **15** 근거 자료 수집하기 **16** ④

01 이 글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하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사실대로 전달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③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는 글은 보고하는 글이다.
④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글은 보도문이다.
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은 연설문이다.

02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졌다고 하였다.
③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2014년에 '잊힐 권리'를 인정하였고,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다고 하였다.
④ 최근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⑤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고,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성이 커진 것이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 때문인 것은 맞지만,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여 정보 노출 위험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점 해결로 논지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박이다.
③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삭제권'을 법에 명시한 유럽 연합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법률을 지정하는 문제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④ 이 글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

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부가 주장하는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이 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이 주장의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주장의 첫 번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상
주장의 첫 번째 이유를 썼으나, 본문에 제시된 문장으로 쓰지 않거나 완결된 문장으로 쓰지 못했다.	중
주장의 첫 번째 이유를 썼으나 본문에 제시된 완결된 문장으로 쓰지 못했다.	하

05 '유출(流出)'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또는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을 뜻한다. ㉣은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므로 후자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내보냄.'을 뜻하는 말은 '배출(排出)'이다.

오답 풀이 ① '우려되다'는 '근심되거나 걱정되다.'의 뜻이다.
② '법제화하다'는 '법률로 정하여 놓다.'의 뜻이다.
③ '침해되다'는 '남에 의해 침범되어 손해를 입다.'의 뜻이다.
⑤ '명목'은 '구실이나 이유'의 뜻이다.

06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은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나 이야기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객관적인 실험 결과나 출처가 밝혀진 통계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이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관련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이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⑤ 구체적 사실이나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7 작년과 올해의 개별적 경험들을 종합하여 비타민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인 귀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내린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한다.
③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한다.
④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는 일반적 법칙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한다.

08 〈보기〉는 카피레프트(copyleft)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카피레프트의 긍정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이유로 제시해야 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소수의 권력이나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 창작 유인이 보장되지 않아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이다.
③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이다.
④ 카피레프트를 허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으로 카피레프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이다.
⑤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창작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카피레프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이다.

09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네 번째 문단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글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을 보면, 2014년 유럽 연합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② 세 번째 문단을 보면, 2023년 4월에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서 두 달 만에 3,488건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감을 주고 있다.
③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삭제권'을 법률에 명시한 유럽 연합의 상황과, 불법 정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10 이 글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논증하는 글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여부는 수필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논증 요소를 고려하여 '서론–본론–결론'의 구성 단계에 맞게 조직해야 한다.
③ 논증하는 글은 논증 요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논증 방법을 선택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글이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되어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야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⑤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11 〈보기〉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의견으로,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잊힐 권리'가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글쓴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문·안면 인식 등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로 개인 정보 검증 과정을 거치면 개인 정보 도용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개인 정보가 도용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한 반박으로 볼 수 없다.
②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잊힐 권리'가 잘못 사용되는 문제 상황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부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
③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잊힐 권리'가 잘못 사용되는 상황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 차원의 홍보와 안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절한 반박이라 보기 어렵다.
④ 개인 정보 도용으로 '잊힐 권리'가 잘못 사용되는 문제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반박이 아니다.

12 서론에서는 2014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의 침해 예방을 위해 잊힐 권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인의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은 본론에 제시된 '이유 2'의 배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개인 정보의 침해 예방을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이유로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⑤ 네 번째 문단에서 본론에서 전개한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3 이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이다.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은 서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4 ㉠, ㉡, ㉢, ㉣는 모두 개인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 정보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 지 두 달 만에 3,488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것이다. 이에 비해 ㉤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명목이므로, '잊힐 권리'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5 논증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주장을 정한 후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근거 자료를 마련하거나 수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3어절로 썼다.	상
근거 자료를 마련하거나 수집한다는 내용을 썼으나, 3어절로 쓰지 못했다.	중
근거 자료를 마련하거나 수집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6 ㄴ은 연구 업적의 공개를 통해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ㄹ은 지적 재산권이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힘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카피레프트는 소수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헌법에서 지적 재산권을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카피레프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ㄷ.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므로, 카피레프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대단원 평가 1

362~366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소박한 공간에서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08** ③ **09** ③ **10** ④ **11** ③ **12** ④ **13**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01 (다)에는 글쓴이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경험과 접시를 꺼내려 찬장 문을 연 경험 등이 드러나지만, (가)와 (나)에는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윤리적 소비', (나)는 '합리적 소비', (다)는 '최소한의 소비'에 대한 글이다. 그러므로 세 글 모두 '소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가)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된 배경과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⑤ (다)의 글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경험과 접시를 꺼내려 찬장 문을 열었다가 찬장마다 그득한 그릇을 본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02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한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것을 먼저 버릴 줄 알아야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도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를 통해 초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윤리적 소비가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어 윤리적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을 알 수 있다.
② 투표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누구에게 투표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 역시 소비자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투표'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최근에는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 합리적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⑤ (다)의 글쓴이는 어느 날 찬장 문을 열었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접시는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하며 자신의 소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03 (나)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르는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해경'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소비를 했고, 대신 용돈을 아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해경'의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판단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해경'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텀블러와 다회용 컵 등을 구매했으므로,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긍정적 구매 행동'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것이다.
② '해경'은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기로 마음먹고 텀블러와 다회용 컵 등을 구매했으므로, 환경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를 실천한 것이다.
③ (나)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해경'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다)의 글쓴이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텀블러가 있음에도 다회용 컵을 또 구매한 '해경'에게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04 (가)의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최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할 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글의 글쓴이는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글쓴이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의 글쓴이는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졌음을 말하고 있을 뿐,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②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일 뿐, 합리성이 윤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에서는 합리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④ (가)에서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개인의 주관적 태도나 우선순위를 개인의 윤리 기준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을 뿐,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윤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⑤ (가)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 소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 역시 소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5 ㄱ. (가)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도 친환경 제품 구매, 공정 무역 제품 구매 등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ㄴ. (가)는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최근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ㄷ. (가)는 소비를 '투표'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나)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ㄹ. (가)는 처음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최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나) 역시 과거와 달라진 소비 경향이나 합리적 소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06 (다)의 글쓴이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최소한의 소비를 추구한다. 반면 (나)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을 읽은 독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면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의 글쓴이는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필요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합리성을 최대한 추구한다는 의미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의 글쓴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성찰하고 있다. 이는 꼭 필요한 것만을 소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필요한 물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글쓴이 역시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필요한 물건이 달라진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에 대해 성찰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의 글쓴이 역시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④ (나)의 글쓴이는 실제 사용하는 물건, 즉 꼭 필요한 물건만을 소비하는 최소한의 소비를 강조하고 있을 뿐 심리적 만족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의 글쓴이 역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을 뿐, 심리적 만족감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07 (다)의 글쓴이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집 내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거실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세이모어를 보며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평가
'소박한 공간'이라는 특성과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보았다는 감상이 드러나고, 이를 주어진 형식에 맞게 7어절로 서술하였다.	상
'소박한 공간'이라는 특성과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보았다는 감상은 모두 썼으나, 이를 주어진 형식에 맞게 7어절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소박한 공간'이라는 특성이나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보았다는 감상 중 하나만 썼고, 이를 주어진 형식에 맞게 7어절로 서술하지 못했다.	하

08 (가)는 협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나)는 논증하는 글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② (가)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갈등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집단의 견해나 입장이 아니라 '잊힐 권리의 법제화'라는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④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해 각각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의사소통 방법은 '토론'으로, (가)는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협상이다. (나)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가사실과 동아리 지원금 사용'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토의'이다. (나)는 여러 주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이라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9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도서부장의 말에 대해, 동아리 부장은 그것은 편견이며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리실을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책 카페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지도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자는 상대측 대안에 동의하고, 각 동아리가 사용 시간을 정해 함께 가사실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② 지도 교사가 오븐을 설치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사서 교사가 가사실 책상 배치를 바꾸고 독서 공간으로 단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동아리 부장이 음료 판매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태자는 제안을 하였다.
④ 동아리 부장은 각 동아리의 사용 시간을 정리한 후에,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가 아닌 책 카페로 만들어 운영하자는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결국 가사실을 책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서로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두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⑤ 도서부장은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하여 제과제빵 동아리가 만든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을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10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설치하자는 대안에 대하여 "오븐을 설치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라며 대안이 수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지도 교사이다. 동아리 부장은 지도 교사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음료 판매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태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안이 수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도서부장은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라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② 사서 교사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은 구매할 수 있다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서 교사는 도서부나 제과제빵 동아리 모두 학생들을 위해 공간과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⑤ 지도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자는 상대측 의견에 동의하며, 두 동아리가 사용 시간을 정해 함께 가사실을 이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11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정보를 구분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2014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사례를 들어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유럽 연합이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다는 사례를 들었다.
⑤ 세 번째 문단에서 2023년 4월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 지 두 달만에 3,488건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2 〈보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알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의 글쓴이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는 개인 정보 유출로 '신상 털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보기〉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공공의 이익 추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반박은 (나)의 글쓴이의 견해에서 벗어난 것이다.
② (나)의 글쓴이는 공공의 알권리를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모두 국민이 지닌 권리이므로 어떤 것이 우선인지 가릴 수 없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알권리가 보장되는 정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권리는 국가 정보에 대한 권리만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은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쓴이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알권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3 (나)의 주제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명료하게 드러난다.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평가 기준	평가
(나)에 제시된 말을 이용하여, 40어절의 문장 형식으로 주제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에 제시된 말을 이용하여 주제를 서술했으나, 40어절의 문장 형식으로 쓰지 못했다.	중
(나)의 주제를 썼으나 (나)에 제시된 말을 이용하여 쓰지 못했고, 40어절의 문장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하

대단원 평가 ❷ 367~371쪽

01 ④ **02** ⑤ **03**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는 어떤 것일까?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원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해야 한다. **09** ③ **10** ⑤ **11**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기 때문이다. **12** ② **13** ④

01 (가)는 과거에는 소비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객체로서만 역할을 했지만 이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는 누구든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편리함에 길들여져 소비하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가)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윤리적 소비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가사실과 동아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⑤ (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다)는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 및 동아리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02 (가)는 윤리적 소비의 의미와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핵심어는 '윤리적 가치' 혹은 '윤리적 소비'이며, (나)의 핵심어는 '최소한의 소비' 혹은 '지속 가능한 삶'이다.

오답 풀이 (가)에서 윤리적 소비는 가격보다 친환경, 공정 무역 등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격'은 윤리적 소비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이며(①), '친환경'은 윤리적 소비의 일부이다(②, ③).
(나)에서 소비하는 삶은 편리하고 풍족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하는 삶'(①, ④)이나 '편리하고 풍족한 삶'(②)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과 상반되므로 핵심어라고 볼 수 없다.

03 (가)와 (나)는 모두 '소비'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소비'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소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읽기 목적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는 어떤 것일까?'가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읽기 목적을 썼고, 이를 6어절의 의문형 문장으로 서술했다.	상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읽기 목적을 썼으나, 이를 6어절의 의문형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중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읽기 목적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했다.	하

04 (가)와 〈보기〉는 모두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는 과거에는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만 역할을 했던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 윤리적 소비임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기〉는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을 불매하는 윤리적 소비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 역시 노동 착취 공장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함으로써, 기존 노동자들이 더 형편없는 일자리로 옮기거나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와 〈보기〉 모두 소비자의 구매 활동이 사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그동안 소비자는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했지만,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④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품질이 뛰어나거나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서 나아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매 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는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을 불매하는 윤리적 소비로 인해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기존 노동자들은 더 형편없는 일자리로 옮기거나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05 (나)의 글쓴이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독자에게 권하기에 적절하다. ①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례이므로 (나)를 읽을 것을 권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③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물건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경우이므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④ 소비를 할 때 최저가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⑤ 물건을 구매하는 기준이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디자인일 뿐,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06 상대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토론을 준비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 (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협상이므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②), 상대측의 요구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④).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①), 상대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③).

07 (나)의 글쓴이는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미리 도시락이나 음료를 챙겨 나서면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을 스스로 찾고 있다. 이는 물건이 흔치 않던 과거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성찰하여 얻게 된 답이다. (다)는 협상으로,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 모두 가사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찾아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개인의 실천과 관련된 것이므로, ㉡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은 소비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답을 얻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고 과정으로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은 양측의 입장과 대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주관적 견해들을 통합해 해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깨달음을 독자에게 권유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에는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은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나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08 도서부의 입장은 도서부장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도서부는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서부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고, 이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사실 공간이나 동아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서부의 입장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중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서부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하

09 ㄱ. '가심비'라는 말을 사례로 들어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를 중시함을 드러내고 있다.
ㄹ. (다)에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근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ㅁ. (라)에서 최근의 소비 경향과 합리적 소비 여부의 판단기준이 다양해졌다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0 〈보기〉는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유행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행 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경제적 합리성만을 중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도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행 효과 역시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킨다면 합리적 소비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유행 효과에 의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리적 소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글쓴이는 소비자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리적 소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했다면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③ 유행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개성이나 취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했다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소비라고 판단할 것이다.
④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합리성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합리적 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글쓴이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져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르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 기준에 맞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모두 포함하여, 9어절의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상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한다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만을 썼거나, 9어절의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한다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만을 썼고, 9어절의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하

12 (가)에서 누리 소통망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불법 정보 여부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라)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다)에서 최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 털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삭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13 〈보기〉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복원되면서, 이로 인해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한 기사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문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복원되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와 거부감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보기〉는 원하지 않는 과거 정보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거부감을 보여 주는 사례일 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보기〉는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복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드러내며,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비공개로 바꿨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보기〉는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탈퇴나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원별 종합 문제

1.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373~375쪽

01 ③ **02**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는 '오랜 침묵', '외로움', '추운 길목'이고, 이는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03** ③ **04** ④ **05** ① **06**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07** ③ **08** ③ **09** ①

01 이 시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여 '당신'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작품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에서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지만 상황의 긴박감과는 거리가 멀다.
④ '~있다면'이라며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기 성찰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당신'을 호칭으로 볼 수는 있으나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02 '겨울'은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하는 시어로, 유사한 시어로는 '오랜 침묵', '외로움', '추운 길목'이 있다. 따라서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는 '오랜 침묵', '외로움', '추운 길목'이고, 이는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평가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모두 제시했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한 개 이하로 제시했고, 시어의 의미를 부족하게 서술하였다.	중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시어의 의미를 부족하게 서술하였다.	하

03 '시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해석은 작가의 작품 경향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추운 길목'이라는 시어를 제시했지만 글쓴이는 시적 화자의 처지와 태도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미지에 근거하여 해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④ '추운 길목'이라는 시어를 제시했지만 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가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04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강연을 위한 글로, 발표할 때와 같이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다.
② (나)는 논설문으로, 문어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창의성을 소재로 쓴 글이다.
⑤ (가)의 발표자는 강연을 하고 있으므로, 정보 전달 대상(청중)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나 (나)는 글이므로 정보 전달 대상(독자)과의 거리가 멀다.

05 '정리부'에서 사회자가 발표를 마무리한 후 청중과의 문답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개부'에서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지만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청중들의 표정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발표자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발표자의 몸짓을 활용한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④ 표정을 활용한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로, 신경 세포가 두 살까지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표현을 전달하면서 청중들의 인식에 자극을 주고 있다.
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뒤 발표자는 이에 대응하여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06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말은 창의성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지만 깊은 생각과 많은 노력을 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정리부의 내용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서술하였다.	상
정리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부족하게 서술하였다.	중
정리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지 못했다.	하

07 (나)의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ㄴ)', 그리고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ㄷ)이다.

오답 풀이 ㄱ. '창의성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의 발표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예로 들며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연관된다.
ㄹ. (나)에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ㅁ. 창의적인 사람들이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는 내용은 (나)가 아니라 (가)에 제시된 내용이다.

08 (가)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특한 생각'이 아닌 '깊은 생각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일부 제시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편견과 오해를 알고 싶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나)에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도 노력의 결과'임을 제시하였고, (가)에서 '1만 시간의 법칙'도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가)를 듣고 '오랜 시간의 생각'과 '노력'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독서 모임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9 사회적 독서 활동은 책 읽기를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활동이다. 이처럼 사회적 독서는 독서 활동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므로 누리 소통망(SNS)에 비공개로 감상을 남기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376~379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④ **07** 간단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새말을 사용하는 대화자 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08** ⑤ **09** ③ **10** ③ **11**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는, ㉡: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는, ㉢: 갔대 **12** ① **13** ② **14** ㄱ: 주는 만큼, ㄴ: 대궐만큼, ㄱ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ㄴ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5** ④ **16** ④

01 이 글은 중세 국어 자료이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는 명사형 어미의 쓰임에도 차이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 명사형 어미 '-(으)ㅁ/-기'를 쓰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날·로·뿌·메'에서와 같이 명사형 어미 '-옴/-움'이 주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나랏 : 말 ᄊᆞ미', '中 듕 國·귁·에' 등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랏 : 말 ᄊᆞ미'의 'ㆍ', 'ㆆ 홇'의 'ㆆ' 등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음운을 확인할 수 있다.
③ 'ᄠᅳ', 'ᄲᅮ' 등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니 르고져 홇 배'에서 '배'의 'ㅣ'은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주격 조사이다.

02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03 〈보기〉는 이어 적기에 대한 설명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표기할 때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어·린'은 연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ᄠᅳ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나 연음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③ '시러'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 연음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④ 'ᄲᅮ·메'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 연음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⑤ 'ᄲᅳ ᄆᆞ미 나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나 연음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04 ㉠은 현대 국어의 '과/와'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④의 '과'도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보다'에도 비교의 의미가 있으나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②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③ 이 문장에서 '와'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 '으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05 중세 국어에서 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에서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옴'/'-움'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였는데 ㉡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는데 ㉡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어두 자음군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06 ㉠와 ㉡에서는 일상 대화에 가까운 구어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림말을 사용하고 있다.
② ㉠에서는 '꿀잼'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④ ㉡에서는 발화자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⑤ ㉠, ㉡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매체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07 '꿀잼'은 '꿀재미'의 준말로, 매우 재미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웃프네'는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여 슬픈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누리 소통망에서 이와 같은 새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08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한 단어들이 등재되어 있다. 반면 '우리말샘'은 일반 사용자들이 어휘를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 사전으로 표준어뿐만 아니라 신조어나 비표준어도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말샘'의 경우에만 개인이 사전을 집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우리말샘'의 경우에만 일반 사용자들이 어휘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에 대한 정보는 국립 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표준 국어 대사전'과 '우리말샘' 모두 발음과 품사 등 단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09 ㉢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공부만'이라고 쓴다.
② '만한'은 보조 형용사로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적절하다.

④ '시간'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네 시간 만'과 같이 써야 한다.
⑤ ⓔ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그'는 관형사이고, '선수', '달리기'는 명사이다. '누구'는 대명사이며, '빠르다'는 형용사이고, '는', '보다', '도', '가'는 조사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11 "그가 이사를 갔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 쓸 수 있고,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쓰며 '-더라'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가 이사를 갔대.'라고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같데', '같대' 중 올바른 표기를 밝히고, '-대'와 '-데'를 쓰는 경우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같데', '같대' 중 올바른 표기를 밝혔으나, '-대'와 '-데'를 쓰는 경우 중 한 가지만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같데', '같대' 중 올바른 표기를 밝히지 못하고, '-대'와 '-데'를 쓰는 경우를 둘 다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2 '맑은'은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중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이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하늘', '코스모스'는 표준어를 발음에 따라 적은 것이다.
④, ⑤ '꽃이', '피었다'는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13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싹둑'이 올바른 표기이다.

14 조사와 의존 명사 중에는 서로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어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한다. '만큼'이 앞의 내용의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띄어 쓰며,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을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평가 기준	평가
ㄱ, ㄴ에서 올바른 띄어쓰기를 고르고, 띄어쓰기의 이유를 품사를 밝혀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ㄱ, ㄴ에서 올바른 띄어쓰기를 골랐으나, 어느 하나만 품사를 밝혀 띄어쓰기의 이유를 서술하였다.	중
ㄱ, ㄴ에서 어느 하나만 올바른 띄어쓰기를 골랐거나, 띄어쓰기의 이유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인 '나이에요'를 줄여 쓴 것이므로 '나예요'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깨끗이'로 써야 한다.
②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해설에 따르면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 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르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쓰므로, '삼 대 일'로 써야 한다.
⑤ '걸'은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 '거' 뒤에 조사 '를'보다 구어적인 'ㄹ'이 붙은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많은'과 '걸'은 띄어 쓴다.

16 '벌이'는 '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벎.'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이때 '-이'는 접미사로, 어간 '벌-'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부사가 되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앎'은 어간 '알-'에 접미사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② '얼음'은 어간 '얼-'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③ 먹이'는 어간 '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⑤ '익히'는 어간 '익-'에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다.

3.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힘

380~383쪽

01 ② **02** ② **03** ④ **04**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 필요해 **05** ② **06** ③ **07** 다는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내용이므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08** ④ **09** ④ **10** ①

01 기사를 쓸 때는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독자들을 고려하여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는 기사에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옹호하는 입장과 비난하는 입장의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기사문에서 상반된 견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신뢰성이 아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③ 내용을 공정하게 쓰는 것과 사회적 쓰기 윤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글쓴이는 둘 중 한 가지 견해에 대해 옹호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다.
⑤ 글쓴이는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02 이 기사는 인공 지능의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 주는 그림과 동영상 자료를 제시해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이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예술쟁이'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 혼이 담긴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공 지능으로 만든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예술쟁이'는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② 글쓴이는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제시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쟁이'가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에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바)의 내용으로 보아, 샤를 보들레르는 새로운 기술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낸 예술가이다. '예술쟁이'도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샤를 보들레르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04 이 기사에서는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해서 그 답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부제'에 해당하는 세 문장 중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문장만을 찾아 정확히 썼다.	상
글쓴이의 관점을 일부 서술하였으나 '부제'를 찾아 쓰지 못하였다.	중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제'를 찾아 쓰지 못하였다.	하

05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이 광고의 핵심어는 '존중과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각 장면에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배려'라는 핵심어를 반복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에는 영상, 문자 언어(자막), 음성 언어(등장인물의 대사나 내레이션) 등이 사용되었다.
③ 자막에 '다르지만'과 '이어 가고'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광고의 주제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이 광고는 영상 광고이기 때문에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 광고보다 다양한 복합양식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이 광고는 유사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다. 즉 배려를 받는 사람이 공간을 이동하여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반복하여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06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절차로 쓴다. ⓐ는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 단계, ⓑ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 ⓒ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07 ㉮는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이 밝다)는 내용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3.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평가
(다)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글을 고치는 이유와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상
글을 고치는 이유와 그 방법은 제시하였으나 (다)의 내용을 바르게 요약하지 못하였다.	중
(다)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글을 고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

08 ㄷ. 면담 대상이 공연 관련 전문가임을 밝히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ㄹ. 보고서를 쓸 때 면담한 내용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면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는 전문가와 면담을 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동기와 목적은 '1.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세부 항목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ㄴ. [A]에서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면담의 대상이 전문가임을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다.

09 이 보고서의 목적은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로 '무대 디자이너'만 제시했으므로 독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에 〈보기〉의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각 자료인 그래프나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
⑤ 〈보기〉의 자료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10 많은 공연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보고서의 작문 관습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러한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해 주관적인 의견인 ㉡을 삭제한다.

참고 자료

보고서의 결과를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찰 및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을 말한다. 보고하는 글의 유형은 탐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보고하는 글이든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쓰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 결과를 글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설문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표현이나 장황한 표현,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료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4.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

384~389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8** ④ **09** ⑤ **10** '쒸집'은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며,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은 ㉠, ㉣, ㉤, ㉥이다.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②

01 (가)에는 시적 화자의 삶의 터전인 '서경'과 시적 화자와 임이 이별하는 '대동강'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공간이 대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나)에는 이승을 나타내는 '예(여기)'와 사후 극락세계를 나타내는 '미타찰'이 대조적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자연물은 '바위', (나)에서 자연물은 '이른 바람', '떨어질 잎'이 등장하지만 유추의 방법으로 이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후렴구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운율을 형성한다. 반면 (다)에는 후렴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의 '어느 가을'은 비유적 표현일 뿐, 계절적 배경으로 보기 어렵다. (다)는 '진달래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봄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⑤ 종교적인 구도의 자세로 이별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02 ㄴ. (가)는 '바위'와 '꽃', (다)는 '진달래꽃'이라는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ㄹ.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는 시구를 통해 (다)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가)는 이별을 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ㅁ. (가)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다)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ㄱ. (가)의 시적 화자는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의 시적 화자는 임이 떠난다면 '영변의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임이 가시는 길에 뿌릴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언급한 것이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ㄷ. (가)와 (다)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ㅂ. (가)와 (다) 모두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되지 않았다.

03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 처해 있다. ②는 실을 뽑아 노끈을 만들어 사랑이 그쳐 갈 때 노끈으로 사랑을 감아 매겠다며 임을 향한 변함 없는 사랑을 노래한 평시조로, 이별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임과 헤어진 후에 생각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깊은 산 속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는 잎, 부는 바람 소리에 혹시 임인지 기대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는 임과 헤어진 후에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을 보면서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이 임과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 같다며 촛불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④ 시적 화자는 임과 헤어지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냇가에 앉아 있는데, 흐르는 물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같아서 밤새 울면서 흐를 것이라고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는 봄에 배꽃이 질 때 임과 헤어졌는데 가을이 온 지금도 임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04 (가)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질투의 가정을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공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서경'과 자신의 생업인 길쌈을 버리면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며 사랑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가)에는 3음보 율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한 뜻이 없는 여음구와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서경별곡」은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조선 전기까지 궁중에서 애창되었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표하였기 때문에 민간과 궁중에서 모두 유행할 수 있었다.
⑤ 한국 문학에는 사랑과 이별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는 사랑과 이별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05 '건너편 꽃'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여자를 뜻하며 시적 화자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새로운 여자를 만날까 봐 염려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오답 풀이 ① ㉠은 시적 화자의 생활 터전이자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장소로, 임과의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
② ㉡에는 임이 시적 화자를 사랑해 준다면 시적 화자는 울면서 임을 쫓아가겠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시적 화자의 체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은 후렴구로,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의미가 없으며, 시적 화자의 정서나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은 구슬이 깨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 부분이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06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연마다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각 계절에 따라 자연을 즐기는 안분지족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결부시켜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갈래는 가사로, 자연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③ (다)는 평민이 주로 향유했던 사설시조이다. (다)에는 힘든 농사일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드러나 있다.
④ (가)는 자연과 어울려 사는 전원적인 모습을, (다)는 농사일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 (다)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나)의 시적 화자는 봄의 풍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다)에는 봄의 풍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07 (나)의 시적 화자는 '홍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상황을 대조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속세의 사람들에게 '귀거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탁료계변'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를 뜻하고, '금린어'는 시냇가에 있는 물고기를 뜻한다. 시적 화자는 이를 안주 삼아 봄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작가가 자연물에 정서가 이입되거나 매개가 되어 시적 화

자의 정서와 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물결에 '유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신의가 있는 물결이라고 의인화한 것에서 시적 화자가 평소에 신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③ 시적 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지금의 즐거움이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며 감사하는 것으로 보아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⑤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신비롭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8 「면앙정가」는 면앙정 주변의 자연 풍경과 그 속에서 사는 삶을 노래한 가사로, 시적 화자는 인간 세상을 떠나서 풍류를 즐기는 자연 친화적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며 지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칭송한다. 이때 '강산풍월'은 시적 화자가 누리고 있는 자연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지만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중국의 이태백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풍류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가)는 '강호에 ~ 드니 ~이 ~ 하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고 이는 운율을 형성한다. 〈보기〉는 '악양루상(岳陽樓上)의 ~ 이 예셔 더홀소냐'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풍류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보기〉의 '역군은(易君恩)이샷다'를 통하여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준다. 〈보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에 견주어 임을 여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보기〉는 사설시조이다. (다)에서는 농부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다)와 〈보기〉의 사설시조를 향유하는 주된 계층은 평민이다.

③ (다)는 점층법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보기〉에서는 중장에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④ (다)의 자연이 농부의 삶의 터전인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 자연은 시적 화자가 아니라 도사공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작자 미상, 「나무도 바히 돌도 업슨~」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애상적
주제	임과 이별한 참담한 심정
특징	• '까투리'와 '도사공'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절망적 심정을 강조함. •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대조법 등을 사용해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함.

10 〈보기〉의 시적 화자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 초가집을 지어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여기고 있다. 〈보기〉의 '쒸집'은 움집, 초가집을 가리키며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데, (가)의 '금린어(㉠)', '소정(㉡)', '누역(㉢)'과 (나)의 '수간모옥(㉣)'이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은 소박한 음식, ㉡은 작은 배, ㉢은 눈이나 비를 막는 옷인 도롱이를 의미한다. ㉣은 몇 칸 안되는 작은 초가집을 말한다.

평가 기준	배점
'쒸집'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를 모두 찾고, 그 의미를 서술하였다.	상
'쒸집'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나 그 의미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쒸집'과 비슷한 의미의 시어와 그 의미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참고 자료

윤선도, 「만흥」

갈래	평시조, 연시조(6수)
성격	자연 친화적, 한정적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특징	•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시켜 주제를 강조함. • 자연에 묻혀 사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타남.

11 (다)의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는 장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경을 주어 내쫓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장인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은 매를 때리고 사경을 주고 내쫓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성례를 미루는데 '나'는 이에 대해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라며 어쩌지 못하고 있다.

② '나'가 장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를 혼내 주라고 했던 점순이가 정작 장인과 '나'의 싸움이 벌어지자 장인의 편을 들어 망연자실했기 때문이다.

③ '나'는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빌미로 성례를 안 시켜 주는 지금에 와서야 애초의 계약이 잘못된 줄 알게 되었다.

④ '나'는 점순이가 '나'의 귀를 뒤로 잡아댕기면서 마냥 우는 모습을 보고 기운이 꺾였고,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잡아채면서 우는 것을 보니 장인님에게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12 〈보기〉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인물의 역할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에 따라 같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다)에서 장인은 '나'의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지져 주면서 올가을에 성례를 꼭 시켜 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나'에게 미안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나'를 계속 부려 먹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가)에서는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장인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나)에서는 몰래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장인과 싸움을 벌인다.
② 장인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자라지 않은 것 때문이라며 '나'에게 신경질을 내었다.
④ '나'는 장인과 큰 다툼이 있었음에도 장인이 살갑게 대해 주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⑤ '나'는 점순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혼내 주라고 먼저 얘기해서 지금의 상황을 속으로 고소해할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정작 다툼이 생기자 점순이는 울면서 자기 아버지 편을 들고 '나'는 영문을 몰라 망연자실한다.

13 (라)를 보면, '나'는 점순이가 성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부추겼기 때문에 장인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장인과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점순이는 장인 편을 든다. 이러한 점순이의 태도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표현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을 활용한 ③이다.

오답 풀이 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②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는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4 〈보기〉는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 점순이의 바뀐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나'에게 독자는 답답함이 아니라 동정심을 갖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장인의 말을 믿는 '나'의 순박하고 모자란 모습에서 해학성이 나타난다.
② '나'가 장인을 '할아버지'로 높여 부르는 것을 통해 상황의 다급함과 희극성이 고조되며, 해학성을 유발한다. 또한 '나'와 장인이 벌이는 비정상적인 격투 장면도 작품의 해학성을 잘 드러낸다.
③ '나'가 장인님의 회유에 설득당한 사실이 웃음을 유발한다.
⑤ 점순이의 말을 믿고 싸움을 일으킨 '나'는 점순이의 태도로 인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독자는 이런 '나'를 보고 동정심을 느낀다.

15 작품의 구성 단계 중 (가)는 발단, (나)와 (라)는 절정, (다)는 결말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구성과는 달리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나'와 장인의 희극적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해학성을 고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가)~(라)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가) – (나) – (라) – (다)가 될 것이다.

5. 서로 다른 시선, 함께 찾아가는 삶

390~39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06** ③ **07** ⑤ **08** ① **09** 가사실을 책 카페로 만들어(바꾸어) 시간을 정해(나누어) 사용한다. **10** ③ **11** ③ **12** ② **13**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4** ② **15** ① **16** ①

01 (가)~(다)는 '소비'라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대조하며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소비'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읽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글이나 자료 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세 글이 동일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에 나타난 화제나 주제,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② 세 글의 글쓴이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에 담긴 관점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③ 세 글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글에 제시된 정보들을 비교하고, 정보 간에 모순되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아야 한다.
⑤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때는 읽기 상황이나 과제와 관련하여 읽기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며 읽어야 한다.

02 (다)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번스타인과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의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가)와 (나)는 유명인의 사례를 소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설명하는 글로,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및 확산 배경과 실천 방법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② (가)는 2019년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나)는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주장하는 글로,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는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다)에도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독자를 설득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수필로,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경험과 이를 통해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다)의 글쓴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한 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소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다)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경제성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는 입장이므로, (다)의 정보와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의 정보이다. 또한 (나)에서는 합리적 소비를 판단할 때 경제적인 능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 것은 (다)이다.
③ (가)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는 소비 시스템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04 (나)의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문단에 잘 드러난다. 글쓴이는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도 늘어나면서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합리적 소비라고 (나)의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성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②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제성이 떨어져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해야 합리적 소비라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들은 제품의 가격보다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르는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면 자신이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 내용이 (나)의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다. 경제성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핵심 주장이다.
⑤ (나)의 글쓴이는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05 (가)의 글쓴이는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배점
(가)에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찾아 썼고, 80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에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찾아 썼지만, 80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썼지만 (가)에서 찾아 쓰지 못했고, 80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하

06 (다)에서 도서부장은 제과·제빵 동아리의 실습으로 가사실이 지저분해질 것이며 동아리 지원금이 오븐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는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 문제점을 근거로 들어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도서부장과 동아리 부장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협상에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도서부가 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서 교사 역시 실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과·제빵 동아리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책 카페를 두 동아리가 함께 운영하자는 대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책 구입 비용을 충당할 방법과 책 카페를 운영하며 늘어나는 일거리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다.
⑤ (마)는 협상의 '해결 단계'로,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책 카페를 운영하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양측 이외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고 있다.

07 (라)에서 도서부장은 책 카페가 생기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책 카페 운영으로 인해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 도서부가 해야 할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리 부장은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일은 학생회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간식 제공과 청소 등의 일을 학생회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맡아서 하자는 제안은 도서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만든 과자와 빵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② (라)에서 동아리 부장은 책 카페를 운영하며 얻은 음료 판매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태어 새로운 책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라)에서 동아리 부장은 책을 많이 대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이용권을 모은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하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④ (나)에서 사서 교사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08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함께 책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제과·제빵 동아리는 제과·제빵 실습 공간을, 도서부는 독서 토론 공간을 얻게 되었다. 책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 공간 사용 권한을 원했던 것은 실습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제과·제빵 동아리가 판매 공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과·제빵 동아리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제과제빵 동아리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도서부는 책 카페에서 판매한 음료 수익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마)로 보아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빵을 판매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경험을 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④ (라)로 보아 도서부는 책 카페를 운영하며 책을 많이 대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이용권을 모은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⑤ (마)로 보아 책 카페 준비와 운영을 통해 실내 장식 디자인이나 대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09 이 협상에 참여한 양측은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꾸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서로 사용할 시간을 정해 함께 이용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평가 기준	배점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꾸어 두 동아리가 시간을 정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7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꾼다는 내용이나 두 동아리가 시간을 정해 사용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썼고, 7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중
가사실을 책 카페로 바꾼다는 내용이나 두 동아리가 시간을 정해 사용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썼고, 7어절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럽 연합이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와 관련하여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며,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이유로,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이유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세 번째 문단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의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1 논증하는 글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인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공공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인한 피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에게 국한된 사안이라는 반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삭제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 글의 예상 반론이 될 수 없다. 이 글의 요지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사회적 합의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반론이 될 수 없다. 잊힐 권리는 모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만으로 충분히 개인 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반론이 될 수 없다.

12 이 글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글로, 논증하는 글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는 편파적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것인지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논증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③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풍부해야 하며, 근거 자료가 주장의 내용과 관련 있는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④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논증 요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논증 방법을 선택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⑤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 등의 논증 요소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13 이 글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첫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과 같이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논증하는 글에서 '결론'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과도 관련된다. 논증하는 글이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평가 기준	배점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을 썼고, 이를 5어절의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을 썼으나, 이를 5어절의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중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했다.	하

14 〈보기〉는 '귀납'에 대한 설명과 사례이다.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로 주장을 도출할 경우 결론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반화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이 범할 수 있는 오류이다.
③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근거로 삼는 '연역'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④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삼는 '연역'에 대한 설명이다.
⑤ '연역'은 이미 증명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므로,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거나 증명하기는 어렵다.

15 논증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논증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장과 이유, 근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주장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③ 근거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면 글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④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이유나 근거로 제시하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
⑤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역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요소이므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야 한다.

16 〈보기〉는 '카피레프트는 창조적 정보 공유 활동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따라서 카피레프트의 긍정적 기능이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시해야 한다. 근거 ①은 과거에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산업국들이 지적 재산권을 강화한다는 사례로, 이를 통해 저작권이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힘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유 ①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카피레프트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다른 창작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창조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거 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제2, 3의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카피레프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이는 근거 ①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이유 ②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제2, 3의 저작물을 만들어 그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면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악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카피레프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⑤ 저작권을 존중하며 저작물을 조건에 따라 이용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은 카피레프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이는 근거 ①과는 관련이 없다.

MEMO

MEMO